

부광교회의 전도 전략연구: 김상현 목사의 전도 목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매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조용훈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Yonghoon Cho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EVANGELISM STRATEGIES AT BUKWANG CHURCH: FOCUSING ON THE EVANGELISTIC MINISTRY OF PASTOR SANG-HYUN KIM

Yonghoon Cho

Bukwang Church, Incheo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evangelism strategies of Bukwang Church and analyzes the evangelistic ministry of Pastor Sang-Hyun Kim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theology. In recent years, Korean churches have experienced a decline in evangelistic vitality and stagnation in church growth due to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nd the expansion of secularization.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this study seeks to explore a practical ministry model that restores evangelism as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This research employs the four tasks of practical theology proposed by Richard Osmer—descriptive, interpretive, normative, and pragmatic—as the analytical framework. Through this approach, the study describes the evangelistic challenges faced by contemporary Korean churches, interprets the theological and pastoral background of Bukwang Church’s evangelistic ministry, evaluates the normative meaning of evangelism from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and proposes practical ministr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hurch today.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re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evangelistic ministry at Bukwang Church. First, Pastor Sang-Hyun Kim understands evangelism not merely as a church program or growth strategy but as the fundamental identity and mission of the church. Second, the evangelistic ministry of Bukwang Church has expanded from individual-based evangelism to a community-oriented evangelistic movement in which the entire congregation actively participates. Third, Bukwang Church has developed an evangelism-oriented church structure in which the overall ministry system of the church is intentionally organized around evangelism.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evangelistic ministry of Bukwang Church provides a meaningful practical model for evangelism-centered church ministry. This study therefore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foundation and practical ministry strategy for restoring evangelism as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in contemporary Korean contexts.

국문초록

부광교회의 전도 전략 연구: 김상현 목사의 전도 목회를 중심으로

조용훈

부광교회, 인천, 대한민국

본 연구는 현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을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데 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세속화의 확산 속에서 전도 열정의 약화와 교회 성장의 정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도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회적 대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상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인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전도 중심 목회의 형성과 구조, 그리고 실제 적용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Richard Osmer가 제시한 실천신학의 네 가지 과제, 즉 기술적 과제, 해석적 과제, 규범적 과제, 실천적 과제를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라는 현실적 상황을 기술하고,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형성된 신학적·목회적 배경을 해석하였으며, 성경적·신학적 관점에서 전도 사역의 규범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목회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하는 데 그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개인 중심 전도에서 공동체 참여 전도로 확장되었으며, 나아가 교회 구조 전체가 전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도 체질화 구조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도 체질화 구조는 평신도 전도 참여, 전도대 조직, 지

속적인 현장 전도, 그리고 전도 중심 목회 구조 형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 사례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을 제시하고, 현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 위기 상황 속에서 전도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회복하기 위한 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목차

감사의 글	ix
제 1 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1.3. 연구 질문 및 핵심 논지	4
1.4. 연구 방법론: 리차드 오스머 접근	5
1.5. 연구 범위 및 방법	7
1.6. 논문의 구성	11
제 2 장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와 부광교회 전도 사역의 현상	13
2.1.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 상황과 사회문화적 변화	13
2.2. 전도 사역의 약화 현상과 프로그램화의 문제	14
2.3. 부광교회 전도 사역의 현상 기술	16
2.4. 부광교회 전도 체질화 구조의 특징	18
제 3 장 전도 약화의 원인과 부광교회 전도 지속성의 분석(해석적 단계)	21
3.1. 전도 동기 분석: 신학적 당위와 현실적 한계	21
3.2. 전도 저해 요인: 교회 구조 및 개인적 요인 분석	23
3.3. 김상현 목사의 전도 진단 연구	25
3.4. 부광교회 전도 지속 가능성의 원인 분석	28
제 4 장 전도의 신학적 본질과 성경적 기준(규범적 단계).....	31
4.1. 전도의 개념 정의 및 신학적 의미	31

4.2. 전도의 성경적 근거	36
4.3. Missio Dei 와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지평.....	41
4.4. 전도의 신학적 정체성: 본질로서의 전도	47
제 5 장 전도 중심 교회 모델과 목회 전략(전략적 단계)	51
5.1. 전도의 원리	51
5.2. 전도 구조와 시스템 구축	63
5.3. 부광교회의 실천적 전도 전략	77
5.4. 전도자의 형성과 훈련	92
5.5. 전도 실행 모델 및 사례 분석	108
5.6. 전도 체질화 교회 모델(EDF Model)의 실천신학적 제안	122
5.7. 전도 중심 교회 모델에 대한 비판적 성찰	133
제 6 장 결론	140
6.1. 연구 결과 요약	140
6.2. 실천신학적 의의 및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과 제언	145
6.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148
참고문헌	152
부록	154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멈추고 싶었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인내로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통찰로 연구의 길을 밝혀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살아 있는 배움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의 본질과 열정을 몸소 보여주신 부광교회와 김상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사역의 경험을 넘어, 제 목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형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긴 여정을 묵묵히 함께 걸어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도로 동역해 준 아내와, 말없이 응원해 준 사랑하는 주원, 하원 두 아들들은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늘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목회자를 믿고 따라와 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이 논문이 교회의 본질인 전도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데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충성되이 걸어가며,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 5.

조용훈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본 연구는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을 탐구하기 위하여 김상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교회학교에서 신학생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당시 사역의 목표는 맡은 부서의 ‘성장’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 출석 인원과 재적 성도의 증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부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역 방식은 당시(2000년-2005년)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성장 중심의 전략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 중심의 사역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성도들의 지속적인 예배 참여와 신앙적 결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교회의 참된 성장과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약 10년 동안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하였으며, 30세에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회적 경험은 교회의 성장과 전도 사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춘천지방 성회 강전도 중심 목회 철학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사로 초청된 김상현 목사를 통해 ‘전도 중심 교회’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단순한 교회 성장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전도 훈련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회 철학은 연구자의 목회적 관점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전도 중심 목회 철학에 깊은 공감하여 김상현 목사가 목회하는 부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 지원을 하였고, 12년 동안 김상현 목사와 함께 전도 사역에 참여하면서 목회적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도 사역이 단순한 교회 성장 전략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 현장 경험은 단순한 실천 차원을 넘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도전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도 사역을 단순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목회적 구조 속에서 재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김상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분석함으로써 전도 중심 교회의 실제적 목회 모델을 탐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대 한국 교회는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전도 사역의 위축이라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화의 확산은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전도 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 교회 성장의 정체와 함께 전도 열정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전도 사역은 점차 축소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의 활동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도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하기보다 교회 성장 전략이나 특정 사역의 하나로 이해하는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전도가 교회의 정체성과 분리되어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의 활동으로 이해될 때, 전도 사역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나 전략적 활동으로 이해하는 접근을 넘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다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도 사역이 교회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실제 목회 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도 중심 목회를 실천해 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전도 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상현 목사는 약 40여 년에 걸친 목회 사역을 통해 전도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강조하며 전도 중심 목회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목회자이다. 그의 목회 사역은 부산 온누리교회, 익산 영생교회, 그리고 인천 부광교회를 거치면서 전도

중심 목회의 다양한 실천적 모델을 형성하였다. 특히 인천 부광교회는 전도 중심 목회가 교회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체계적으로 구현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김상현 목사의 전도 목회와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분석하는 연구는 현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 위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1.3. 연구 질문 및 핵심 논지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대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어떠한 신학적 이해와 목회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는가?

둘째, 부광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체질’로 정착시킬 수 있었는가?

셋째, 이러한 전도 체질화 구조는 현대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넷째, 부광교회의 전도 모델은 다른 교회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모델로 일반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맥락에 제한되는가?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단순한 교회 성장의 성공 사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전도 이해와 실천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가를 탐구하는 실천신학적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과 김상현 목사의 40년 전도 목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를 단순한 위축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재구성의 기회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도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다시 배우며, 다시 실천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와 실천적 길을 제시하고, 교회의 실제 전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4. 연구 방법론: 리차드 오스머 접근

이를 위해 Richard Osmer 가 제시한 네 가지 과제, 즉 기술적 과제, 해석적 과제, 규범적 과제, 실천적 과제를 기본 분석의 틀로 삼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기술적 과제에 따른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라는 거시적 현실 속에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세속화와 종교 환경의 변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하락, 전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삼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부광교회가 지속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어온 실제 목회 현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김상현 목사의 40년에 걸친 목회 여정 속에서 형성된 전도 방식, 전도 대상에 대한 이해, 전도와 목회 전반의 관계 설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흐름을 통해 기술함으로써,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전도 목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의 해석적 과제에 따른 목적은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지속 가능했던 이유와 그 배경에 놓인 신학적, 목회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단순히 ‘전도가 잘 되었다’는 현상을 넘어, 그러한 전도 실천이 가능했던 내적 동기와 구조를 해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가 어떤 신학적 전제 위에서 형성되었는지,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이 아닌 목회의 본질로 인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교회 공동체의 문화와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도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교회 내부의 피로감 속에서도 전도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개인 목회자의 영성, 교회 공동체의 참여 방식, 지역 사회와의 관계 설정 등 다방면적인 차원에서 해석함으로써,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지닌 내적 논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본 연구의 규범적 과제에 따른 목적은 부광교회의 전도 목회 사례를 성경적, 신학적 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오늘날 교회 전도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도가 교회 존재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도와 제자도, 전도와 공동체성, 전도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신학적 균형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단순히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전도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전도가 회복해야 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전도가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전략하거나, 반대로 시대적 비판 앞에서 위축되는 양극단을 넘어서는 신학적 이해를 정립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의 실천적 과제에 따른 목적은 부광교회의 전도 전략과 목회적 통찰을 토대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도 위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목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전도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이면에 놓인 신학적 원리와 목회적 태도를 추출하여 다양한 교회 상황 속에서 재해석·재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규모나 지역, 교단을 초월하여 한국 교회가 전도를 다시금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회복하고, 성도나 개인과 공동체가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전도학 연구가 제시한 신학적 틀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 사례를 통해 이를 실천신학적으로 확장하고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목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5.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김상현 목사의 40여 년에 걸친 목회 여정을 연구 범위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광안리교회(현재 온누리교회), 익산 영생교회, 인천 부광교회에서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그의 전도 이해와 실천이 어떻게 발전·확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각 교회 사역은 동일한 전도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지역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기에,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김상현 목사의 전도 전략이 지닌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조망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은 3 곳 교회의 모든 사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부광교회 전도 전략을 중심에 두고 이전 사역들은 그 형성과 배경으로 한정하여 논의한다.

먼저 부광교회 담임목사이며, 전도를 통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킨 김상현 목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김상현 목사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중, 고교 시절 CCC(한국대학생전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달은 김상현 목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결심한다. 첫 담임 목회는 농촌 지역인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서 시작했고, 교회 건축을 한 이후에 부산으로 임지를 옮긴다. 당시 복음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부산에서 상가 2층 임대 교회를 약 1,000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전라도 익산에서도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그 후 2004년 인천시 부평에 위치한 부광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전도 중심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온 교인들이 전도에 힘쓰으로써 1,500명이었던 교인이 성인만 3,500명이 예배하는 교회로 부흥하였다. “부흥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교인들에게 외치며 전도 야전 사령관으로서 김상현 목사는 전도 현장의 선봉에 서서 인천 부평 지역의 85%의 불신자를 전도하여 해마다 교회 성장률 10% 이상의 부흥 성장을 시키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김상현 목사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3 단계 발전 모델로 설정하고자 한다.

- 1 단계: 부산 광안리교회(현재 온누리교회) - 전도의 각성과 실천 단계
- 2 단계: 익산 영생교회 - 전도의 지역 교회 적용 및 확장 단계
- 3 단계: 인천 부광교회 - 전도의 구조화·체계화·모델화 단계

1 단계인 김상현 목사의 부산 사역은 전도에 대한 신학적 각성과 현장 실천이 동시에 발생한 초기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김상현 목사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당시 부산 지역은 한국 교회 내에서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인식되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광안리 교회는 당시 부산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광안리 교회는 교회 건물을 갖지 못해 상가를 임대하여 2층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과정에서 외적 조건의 불리함과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하였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만 찾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도 중심 목회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선택이 아닌 ‘목회의 본질’로 인식한다. 이 시기에 전도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그리고 전도의 결과보다 복음 선포 자체의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김상현 목사는 성도들에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고 가르치면서, 실패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는 결과 이전에 복음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것으로 여긴다. 전도 사역 자체를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 드리는 행위”로 이해하는 신학적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산에서의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즉, 부산 사역은 전도 중심 목회의 태동기로서, 아직 전도 사역이 체계화되지는 않았으나 전도가 목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 형성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2 단계인 익산 영생교회 사역은 부산에서 형성된 전도 신학과 실천이 다른 지역 교회로 이전·적용되는 실험 단계로 볼 수 있다. 전도가 특정 지역과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보편적 응답임을 강조한다. 부산은 한국 내에서도 2대 도시로 인구가 많고, 광안리의 재개발로 인한 폭발적 인구 밀집과 도시 인프라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이 아님을 가르치고 강조한다.

익산 영생교회 전도 사역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전도가 개인의 열심에서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익산 영생교회에서부터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전도를 강조하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전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전도를 교회 구조 안으로 흡수하려는 시도가 처음 나타난다. 전도팀이 새롭게 조직되거나, 특별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직인 남·여선교회, 속회 조직들을 전도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전도가 특정 리더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 기능임을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김상현 목사의 익산 영생교회에서의 전도 사역은 전도 중심 목회의 재현 가능성을 검증한 단계로 전도가 특정 도시나 문화에 제한되지 않음을 실증한 확장 단계이다.

마지막 3 단계인 인천 부광교회에서의 사역은 김상현 목사의 전도 신학이 구조·조직·매뉴얼을 갖춘 교회 시스템의 완성된 단계이다. 김상현 목사 부임 당시 부광교회는 평일 활동(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오전)이 거의 없는 교회였으나, 전도 중심 목회 도입 이후 ‘평일에도 성도들이 사무실 출근하듯 드나드는 교회’로 변화되었다.

부광교회 전도 사역의 핵심은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체질이다.’라는 명제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가 확립되었다. 125개 전도대 조직(선교회와 속회 조직 숫자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경됨)과 365일 현장 전도가 확립되었고, 이로 인해 거점·거리·아파트 전도가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도 본부가 설립되어 전도 사역을 뒷받침한다.

부광교회는 기존의 일회성 총동원 전도를 비판하고, 70일 지속형 부광 전도축제 모델을 개발하였다. 70일 동안 지속되는 전도축제는 전체적인 전도 사역의 비용을 절감하고, 새가족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교회 규모와 무관한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실제로 부광교회는 70일간 약 300명 새신자 등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부광교회 사역은 김상현 목사의 40여 년의 전도 중심 목회의 완성 단계로서, 개인 전도에서 지역 교회 전도, 그리고 전도 중심교회의 모델 교회로 이어지는 발전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 발전 단계 종합 분석표 <표 1-1>

단계	핵심특징	전도의 성격
1 단계(부산 광안리교회)	각성 · 순종	개인 실천 중심
2 단계(익산 영생교회)	적용 · 확장	공동체 전이
3 단계(인천 부광교회)	체계 · 모델화	교회 시스템

김상현 목사의 전도 사역은 우연적 성공 사례가 아닌 단계적 발전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전도 발전 단계의 구조는 <표 1-1>과 같다. 부산 사역은 전도의 신학적 각성, 익산에서는 전도의 적용과 확장, 인천 부광교회에서는 전도의 구조화와 모델화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 교회 전도 회복을 위한 실천 신학적 · 목회학적 모델로서 중요한 학문적 가치를 지니므로 본 논문의 연구 범위로 지정하고자 한다.

1.6.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을 탐구하기 위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문제 제기, 연구 목적과 필요성, 연구 질문 및 핵심 논지, 연구 방법론과 범위, 그리고 논문의 전체 구성을 제시한다.

제 2 장은 경험적 단계로서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 상황과 사회문화적 변화를 분석하고,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 현상을 기술한다.

제 3 장은 해석적 단계로 전도 약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부광교회 전도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해석한다.

제 4 장은 규범적 단계로 전도의 신학적 본질과 성경적 기준을 고찰한다.

제 5 장은 전략적 단계로 전도 중심 교회 모델과 목회 전략을 제시한다.

제 6 장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과 제언을 제시한다.

제2장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와 부광교회 전도 사역의 현상(경험적-질적 단계)

2.1.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 상황과 사회문화적 변화

현대 한국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전도 사역의 위축이라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화의 확산은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전도 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최근에는 교회 성장의 정체와 함께 전도 실천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종교를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도 활동은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이나 강요로 인식되기도 하며, 이는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종교 다원주의의 확산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고, 복음 전파에 대한 동기 역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갈등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이는 전도 사역의 환경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전도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사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는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보다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의 활동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전도 문화 형성에는 한계를 가진다. 결국 전도는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 위기는 단순한 사역의 감소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도는 교회의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이러한 사명이 약화되는 현상은 교회 존재의 의미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전도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회복하기 위한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재구성이 요청된다.

2.2. 전도 사역의 약화 현상과 프로그램화의 문제

현대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전도 사역의 약화는 단순히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교회 내부의 사역 구조와 운영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많은 교회에서 전도는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점차 주변적인 사역으로 밀려나거나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는 활동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기보다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의 선택적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상당수 교회는 전도 사역을 지속적인 삶의 실천으로 정착시키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나 캠페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동원 주일, 초청 행사, 전도 축제 등과 같은 이벤트 중심의 전도 방식은 단기간 내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도 사역이 교회의 일상적 구조와 문화 속에 뿌리내리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은 전도를 ‘특별한 시기’에 수행하는 활동으로 제한함으로써,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전도 실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교회의 사역 구조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전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보인다. 예배, 교육, 양육, 교제 등 다양한 사역이 개별 프로그램으로 분절되어 운영될 때, 전도는 별도의 사역 영역으로 구분되며 교회 전체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그 결과 전도는 특정 부서나 일부 성도들의 활동으로 한정되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역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중심 전도 구조는 성도들의 전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도가 일상적 삶의 일부가 아니라 특정한 훈련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해될 때, 성도들은 전도를 자신의 지속적인 사명으로 인식하기보다 선택적인 참여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는 전도에 대한 책임 의식과 실천 의지를 약화시키며, 결국 교회 전체의 전도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도 사역의 약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도 활동의 빈도나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접근을 넘어, 전도를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통합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전도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직결된 사명이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전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의 프로그램화 문제는 단순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3. 부광교회 전도 사역의 현상 기술

앞서 살펴본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교회는 지속적인 전도 사역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있다. 인천 부광교회는 이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전도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교회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속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킨 교회로 평가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운영 원리로 작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도를 특정 사역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의 전반적인 구조 속에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도는 예배, 교육, 소그룹, 교제 등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분리된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도는 일부 성도나 특정 조직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보편적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부광교회는 전도 사역을 일상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 지역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 사역에 참여한다. 이러한 전도 방식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며,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형성한다. 그 결과 전도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 교회는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도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현장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전도 사역이 일시적인 열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부광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전도 사역이 공동체적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도는 특정한 개인의 은사나 열정에 의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역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전도는 일부 헌신된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공동의 사명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의 체질로 이해하고, 이를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정착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도 사역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전도를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광교회의

사례는 전도 사역의 본질과 구조를 재고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2.4. 부광교회 전도 체질화 구조의 특징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 교회 전체의 구조와 문화 속에 내재화된 ‘전도 체질화’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전도를 특정 사역이나 행사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교회 구조와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으로, 전도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 운영 원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도 체질화는 교회의 조직, 사역 운영 방식, 성도 참여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첫째, 부광교회의 전도 체질화는 교회의 조직 구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부광교회는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전도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전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선교회와 속회 조직을 중심으로 전도대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교회 조직이 전도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를 별도의 부서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 전체 조직 속에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¹

둘째, 전도 체질화는 전도 사역의 지속성과 일상성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부광교회는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는 전도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른바 ‘365 일 전도’는 전도가 일회성

¹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서울: 두란노, 2006), 63.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일상적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²

이러한 구조는 전도를 특정 시기에만 수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는 사역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부광교회의 전도 체질화는 공간적·현장 중심 전도 구조를 통해 구체화된다. 교회는 거점 전도, 거리 전도, 아파트 전도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전도 방식을 조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도 사역이 실제 삶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도가 교회 내부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 속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형성하며, 복음 전파가 보다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³

넷째, 전도 체질화는 전도 사역을 지원하는 행정적·운영적 시스템을 통해 더욱 공고화된다. 부광교회는 전도 본부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도 사역이 개인의 열정이나 일시적인 동기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전도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자료 제공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도 사역의 효율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확보된다.⁴

다섯째, 부광교회의 전도 체질화는 공동체 전체의 참여 구조를 통해 완성된다. 전도는 특정한 전도 전문가나 일부 헌신된 성도들의 사역으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명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 교회는 평신도 전도자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전도대를 조직하여 성도들이 실제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² 교회성장연구소, 『365 전도체질 부광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52.

³ Ibid., 78.

⁴ 김상현, 『복음만 자랑하라』 (서울: 두란노, 2010), 112.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을 교회의 일부 기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

결과적으로 부광교회의 전도 체질화 구조는 전도를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 체질로 이해하고, 이를 조직, 구조, 문화,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통합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질화 구조는 전도 사역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전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광교회의 전도 체질화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전도 중심 교회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적 자료로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⁵ 김상현, 『나는 전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서울: 두란노, 2005), 63.

제3장 전도 약화의 원인과 부광교회 전도 지속성의 분석(해석적 단계)

3.1. 전도 동기 분석: 신학적 당위와 현실적 한계

전도는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의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이며, 전도는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이해는 David J. Bosch가 제시한 *Missio Dei* 개념과 깊이 연결된다. Bosch는 선교를 교회가 주도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으로 이해하며, 교회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설명한다.⁶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외적 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신학적 당위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를 선교적으로 재구성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도에 대한 신학적 인식과 실제 실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도 동기의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는 중요하게 강조되지만, 실제

⁶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389.

사역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내부 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되기보다 기능적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도 동기의 약화는 특히 전도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신앙적 행위로 이해될 때, 그것은 자발성과 헌신을 동반하는 사명이 된다. 그러나 전도가 교회 성장이나 조직 확장의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전도는 외적 성과에 의해 평가되는 활동으로 전환되며, 그 결과 성도들의 내적 동기는 점차 약화될 수 있다.⁷ 이러한 변화는 전도 사역을 지속적인 삶의 실천이 아니라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전도 동기는 개인의 신앙 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도가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있을 때, 전도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거나 신앙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게 될 경우, 전도는 부담스러운 의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신앙 경향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며, 전도를 공동체적 사명이 아닌 개인의 선택적 활동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종교 환경 역시 전도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화의 확산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며, 복음 전파에 대한 내적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⁸ 또한 전도 활동이

⁷ Ibid., 412.

⁸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VP, 2006), 198.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전도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는 전도 실천의 감소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전도 동기의 약화는 단순히 개인의 열정 부족이나 외적 환경의 변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전도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교회의 구조,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도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도의 신학적 당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목회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전도를 다시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3.2. 전도 저해 요인: 교회 구조 및 개인적 요인 분석

현대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전도 사역의 약화는 단순한 외적 환경의 변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교회 내부 구조와 성도 개인의 신앙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은 교회의 사역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성도들의 인식과 태도 속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교회 구조적 측면에서 전도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많은 교회가 전도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역 구조에서는 이를 중심에 두지 못하는 이중적 경향을 보인다. 교회의 사역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분절되어 운영될 경우, 전도는 자연스럽게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도는 교회의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사역이 아니라, 특정 부서나 일부 성도들이 담당하는 제한된 영역으로 축소된다.⁹

특히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운영 방식은 전도 사역을 일회성 행사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을 강화한다.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 축제와 같은 이벤트 중심의 전도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도 사역을 교회의 일상적 구조와 문화 속에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은 전도를 지속적인 삶의 실천이 아닌 특정 시기에 수행하는 활동으로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도 사역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¹⁰

또한 교회의 내부 지향적 사역 구조 역시 전도 약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회가 성도 관리와 내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수록 외부로 향한 선교적 사명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회는 점차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동체로 기능하게 되며, 전도 사역은 교회의 중심 사역에서 주변적 활동으로 밀려나게 된다.¹¹

한편 전도 저해 요인은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도 실천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이다. 전도 과정에서의 거절 경험,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전도 실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¹²

⁹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41.

¹⁰ Ibid., 63.

¹¹ Bosch, *Transforming Mission*, 412.

¹² 김상현, 『나는 전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63.

더불어 전도를 특정한 은사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인식 역시 전도 사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도가 일부 전도 전문가나 헌신된 성도들의 사역으로 인식될 경우, 일반 성도들은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는 교회 전체의 전도 참여도를 낮추고, 전도 사역을 소수 중심의 활동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¹³

또한 현대인의 삶의 방식 역시 전도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 바쁜 일상과 개인 중심의 생활 패턴 속에서 전도는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활동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사명으로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도 사역의 약화는 교회의 구조적 문제와 성도 개인의 인식 및 삶의 방식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도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교회의 구조를 전도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도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전도를 다시 교회의 중심 사명으로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3.3. 김상현 목사의 전도 진단 연구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으로 설명한다.¹⁴ 이러한 정의는 전도의 목적이 단순한 교회

¹³ Ibid., 63.

¹⁴ 김상현, 『복음만 자랑하라』, 48.

성장이나 조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전도의 중심 목적은 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체질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는 특정 기간에 진행되는 행사나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인 전도 사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를 일시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와 체질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⁵

이러한 전도 이해는 단순한 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실제 사역 구조 속에서 구현된다. 예배와 교육, 제자 훈련, 소그룹 사역 등 교회의 다양한 사역이 전도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향한 방향 속에서 운영될 때 교회 공동체는 지속적인 전도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교회의 특정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된다.

전도 사역이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의존할 경우 전도 사역은 일시적인 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도 사역이 교회의 문화로 형성될 때 전도는 교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김상현 목사는 교회가 전도 중심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도 문화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를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의미한다. 부광교회에서는 설교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전도 사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¹⁵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97.

성도들은 전도를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된다.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전도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전도 사역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도 문화는 교회의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도 체질 교회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전도 체질 교회에서는 전도 사역이 특정한 부서의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배와 교육, 소그룹 모임, 그리고 다양한 교회 사역이 전도와 연결되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이러한 전도 체질 교회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도 사역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삶과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전도 사역을 목회자 중심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역으로 이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는 전도가 일부 전도 전문가나 특정 사역자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체적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광교회는 평신도 전도대를 조직하고 성도들이 실제 전도 현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를 개인의 열정이나 일시적 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김상현 목사의 전도 개념은 현장 전도, 전도 체질화, 평신도 전도 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도 목회 구조를 형성한다. 현장 전도가 전도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전도 체질화는 전도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며, 평신도 전도 구조는 이러한 전도 사역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부광교회의 사례는 이러한 전도 개념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광교회는 평신도 전도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도 사역을 실시하였으며, 365 일 전도 구조와 체계적인 전도 훈련을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도 구조는 전도가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3.4. 부광교회 전도 지속 가능성의 원인 분석

부광교회의 사례는 전도 사역이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광교회는 전도를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설정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전도 중심 구조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도 사역은 특정한 시기나 행사에 제한되지 않고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으로 정착되었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전도 체질화 구조의 형성이다. 전도 체질 교회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도 사역은 특정한 부서나 일부 성도들의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 확장된다.

또한 부광교회는 전도 사역을 교회의 문화로 형성하였다. 전도 사역이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의존할 경우 일시적인 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높지만, 전도 사역이 교회의 문화로 형성될 때 전도는 교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부광교회에서는 설교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전도 사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전도를 신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전도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전도 사역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평신도 중심의 전도 구조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을 목회자 중심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역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부광교회는 평신도 전도대를 조직하고 성도들이 실제 전도 현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특정 개인의 열정이나 일시적인 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부광교회는 365일 전도 구조를 통해 전도 사역의 지속성을 강화하였다. 전도는 특정한 기간에 집중되는 활동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정착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도는 교회의 일상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성도들이 전도를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명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전도 체질화, 전도 문화 형성, 평신도 참여 구조, 그리고 지속적인 전도 시스템이라는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회의 규모, 지역적 특성, 그리고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부광교회의 사례는 전도 사역의 지속 가능성이 단순한 열정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와 문화, 그리고 성도 참여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전도 중심 교회로의 전환이 단순한 사역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구조와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제4장 전도의 신학적 본질과 성경적 기준(규범적 단계)

4.1. 전도의 개념 정의 및 신학적 의미

4.1.1. 복음 전도의 일반적 · 신학적 정의

기독교 신앙에서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며,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적인 사역이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나 신앙 공동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선교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하나의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본질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교회가 단순히 내부적인 신앙 활동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전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약성경에서 전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용어는 헬라어

$\epsilon \upsilon \alpha \gamma \gamma \acute{\epsilon} \lambda \iota \omicron \nu$ (euangelion)이며, 이는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리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John Stott 는 전도를 복음 선포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전도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고 따르도록 초청하는 행위” 라고 설명한다.¹⁶ 이러한 정의는 전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종교적 권유가 아니라 복음의 선포와 신앙적 결단을 동시에 포함하는 사역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교리를 설명하거나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신앙적 초청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John Stott 는 전도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도는 인간의 윤리적 개선이나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사역이다.¹⁷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전도의 핵심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있다. 따라서 전도는 인간 중심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음 선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도 이해는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사역이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단순한 선포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삶과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되는 전도라는 점에서 기존 전도 이해를 실천신학적으로 확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존재 방식으로 재정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의를 지닌다.

¹⁶ John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VP, 1975), 37.

¹⁷ Ibid.

또한 전도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역이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며,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는 교회의 활동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깊이 연결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전도 사역을 수행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는 사역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전도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넘어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현대 선교학에서는 전도를 교회의 전략적 활동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신학적 행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도를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교 사역에 교회가 참여하는 행위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David J. Bosch 는 전도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교회가 참여하는 행위”로 설명한다.¹⁸ 그는 선교는 교회가 시작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하신 사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도는 단순히 교회가 수행하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적 순종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osch 는 전도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설명한다. 그는 전도가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¹⁸ Bosch, *Transforming Mission*, 389.

사역이라고 강조한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적 사역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전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결단을 유도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을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선교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전도를 교회 성장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경계하도록 한다. 전도는 교회의 조직적 성장이나 외형적 확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신학적 사명이다.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닌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복음 전도의 신학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도는 복음 선포의 사역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둘째, 전도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이다. 셋째,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이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복음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깊이 연결된 사명이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1.2. 김상현 목사의 전도론적 정의

김상현 목사에 의하면 전도는 단순한 종교적 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¹⁹ Ibid., 412.

행위이다.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것’ 자체에 본질이 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순종 중심적 행위이다. 또한 전도를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나 특정 사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한다. 그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전도 이해는 전도를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관점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²⁰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으로 설명한다.²¹ 이러한 정의는 전도의 목적이 단순한 교회 성장이나 조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전도의 중심 목적은 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체질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는 특정 기간에 진행되는 행사나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인 전도 사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를 일시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와 체질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²²

김상현 목사는 이러한 전도 철학을 바탕으로 “전도 중심 교회”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전도 중심 교회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의미한다. 예배와 교육, 제자 훈련, 소그룹 사역 등 교회의 다양한 사역이

²⁰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25.

²¹ 김상현, 『복음만 자랑하라』, 48.

²²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41.

궁극적으로 전도와 연결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²³ 이러한 관점은 전도를 교회의 특정 사역 부서의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 전체의 사명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그는 전도 사역이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평신도 전도자를 훈련하고 전도대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전도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이러한 평신도 중심 전도 사역은 교회의 전도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전도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전도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하고 이를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도를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사역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김상현 목사에게 복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소식, 영생과 천국의 약속,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즉, 복음은 교리 체계 이전에 인격적 사건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따라서 전도는 “무엇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4.2. 전도의 성경적 근거

²³ Ibid., 63.

²⁴ 김상현, 『복음만 자랑하라』, 112.

전도는 교회의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본질적 사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셨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경적·신학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전도는 교회의 일부 사역으로 제한될 수 없으며 교회의 존재와 사명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 교회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다. 또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실제 역사 속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따라서 전도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과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1. 구약성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

구약성경은 전도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선택하셨다. 이러한 사명은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다(창 12:3).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정 민족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한 사명적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약의 선교적 관점은 시편과 예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모든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 96:3)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 으로 부름 받았음을 강조한다(사 49:6).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준다.

Christopher J. H. Wright 는 구약의 이러한 흐름을 “하나님의 선교” 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스라엘은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되었다고 주장한다.²⁵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의 선택 사상은 단순한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사명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종교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명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교회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²⁵ Wright, *The Mission of God*, 198.

4.2.2. 신약성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사도행전적 교회론

신약성경에서 전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수는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마태복음 28 장 19-20 절은 흔히 “지상명령(Great Commission)” 이라고 불리며 교회의 전도 사명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이 명령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복음의 대상이 “모든 민족” 이라는 점이다. 이는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도의 목적이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제자 삼는 데 있다는 점이다. 예수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강조하였다. 셋째, 이 명령은 예수의 권위에 근거한다. 예수는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 28:18)라고 선언하셨다. 따라서 교회의 전도 사명은 인간의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세윤은 이러한 지상명령을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수의 복음이 단순히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한다.²⁶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교회의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예수의 명령을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기록하면서 전도가 교회의 핵심 사역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도행전 1 장 8 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전도 사명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증인”이라는 점이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공동체나 종교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존재한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이러한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러한 복음 확장의 과정은 교회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김세윤은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을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설명한다. 그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였으며 복음 선포가 교회의 존재 이유였다고 강조한다.²⁷ 따라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존재해야 함을 보여준다.

²⁶ 김세윤, 『바울복음과 선교』 (서울: 두란노 2001), 87.

²⁷ Ibid., 132.

4.3. Missio Dei와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지평

4.3.1. Bosch의 Missio Dei 개념과 전도 이해

David J. Bosch는 “Missio Dei”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론이나 구원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었다. 고전적인 Missio Dei 교리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운동’이 추가되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다.²⁸

Bosch의 이 정의는 선교 이해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의미한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선교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존재임을 천명한다. 이로써 선교는 더 이상 교회가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 자체에 기초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된다.

Bosch는 mission(단수)과 missions(복수)를 명확히 구분한다. 전자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자체를 가리키고, 후자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하는 구체적 형태들을 가리킨다. 이 구분 위에서 그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선언한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이 차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선택적인 부가 요소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 본성상 선교적이거나, 그렇

²⁸ Bosch, *Transforming Mission*, 390.

지 않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²⁹

나아가 그는 교회의 선교적 자기이해를 더욱 구체화한다:

“교회는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교회의 선교(곧 ‘보냄 받음’)는 교회의 존재에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는 보냄 받음 속에서 존재하며, 그 선교를 위하여 자신을 세워가는 가운데 존재한다.”³⁰

이 명제는 전도를 교회 사역 중 하나로 이해하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Bosch에게 선교(전도)는 교회가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근거이자 방식이다.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는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이다” 라는 그의 선언은 이를 간명하게 표현한다.

아울러 그는 전도를 선교의 핵심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면서, 복음의 선포와 사회적 책임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선교가 단순한 영혼 구원이나 교회 확장으로 환원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구속과 해방의 사역에 동참하는 참여적 행위이다.”³¹라고 정의함으로써 선교의 포괄적·해방적 차원을 강조한다.

4.3.2. Newbigin의 선교적 교회 이해: 복음의 해석학적 공동체

Lesslie Newbigin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 사적 신념으로 축소되는 위험을 경계하면서, 복음을 공적 진리로 담대히 선포해야 함을 강조한다:

²⁹ Ibid., 9.

³⁰ Bosch, *Transforming Mission*, 372.

³¹ Ibid., 519.

“교회는 자신의 역할을 단지 개인들을 사적인 삶과 가정적 영역에만 관련된 어떤 기독교적 제자도로 이끄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과 모든 민족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회는 공적 진리의 영역을 담대히 주장해야 한다.”³²

이 명제는 전도를 개인 영혼 구원의 영역으로만 한정하는 이해를 넘어서, 복음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관계된 공적 진리임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전도 이해의 지평을 확장한다.

Newbigin의 선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교회가 복음의 해석학적 공동체(hermeneutic of the gospel)라는 명제에 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나는 복음에 대한 유일한 해석, 곧 유일한 해석학은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제안한다. 물론 나는 우리가 복음으로 공적 삶에 도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들 - 전도 집회, 성경과 기독교 문서의 배포, 각종 집회, 심지어 이 책과 같은 저술들 - 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며, 그것들이 목적을 이루는 힘은 오직 믿는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시 그 공동체로 되돌아갈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고자 한다.³³

이 인용은 Newbigin의 선교 신학 전체를 집약하는 핵심 명제다. 복음 선포를 위한 모든 전도 활동-전도 캠페인, 성경 배포, 집회 등-은 그 자체로 가치 있지만, 이것들은 복음으로 형성된 믿는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그 공동체로 다시 이어질 때에만 진정한 효력을 발휘한다. 교회 공동체의 삶 자체가 복음 증언의 1차적 형태라는 것이다.

³²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222.

³³ *Ibid.*, 227

또한 Newbigin은 교회가 단지 자신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사회적 행동가들의 입장에서 옳은 점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복음에 대한 반증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나 그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지(sign)요 도구(agent)이며 미리 보여주는 전조(foreshadowing)로서 존재한다.³⁴

4.3.3. Guder의 선교적 교회론: 파송받은 공동체

Darrell Guder는 복음과 교회의 사명, 특히 전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복음은, 예수에게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에 깊이 중심을 두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성격을 지닌다. 복음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냄으로써 세계의 미래를 향한 지평을 밝혀 준다. 또한 복음은 예수의 오심,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세계 역사 속에서 결정적이며 참으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제시한다.³⁵

이 복음 이해 위에서 Guder는 교회의 존재와 사역 전체가 이 복음의 선포와 구현을 향해 정향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존재(being)와 행함(doing)이 불가분리하게 복음 선포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

“교회의 존재(being)와 사역(doing)은 그 자체로 복음 선포와 불가분적으로

³⁴ Ibid., 232.

³⁵ Darrel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108.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다.”³⁶

Guder는 또한 전도가 목회자나 특정 전도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의 사명임을 강조한다:

“말씀에 중심을 두고 복음적 동역성 속에서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은, 모인 교회를 섬기며 각 구성원이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³⁷

이는 전도 사역이 교회 지도자의 전문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3.4. Bosch · Newbigin · Guder와 김상현 목사 전도 중심 모델의 비교 분석

Bosch · Newbigin · Guder의 선교적 교회론과 김상현 목사의 전도 중심 모델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명제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전도/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지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다. 김상현 목사의 핵심 목회 명제인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체질이다"는 동일한 신학적 직관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전도를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내면화된 교회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세 학자와 김상현 목사 모델이 공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전제이다.

둘째, 전체 공동체의 참여와 일상적 실천이다. 이것은 Guder가 모든 성도의 사

³⁶ Ibid., 97.

³⁷ Darrell L. Guder, *Called to Witness: Doing Mission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15), 56.

도적 사명(apostolate)을 강조하고, Newbigin이 믿는 공동체 전체의 삶을 복음 증언의 1차적 형태로 이해하듯, 부광교회의 125개 전도대 조직과 365일 현장 전도의 구조는 이 신학적 통찰의 실천적 구현이다. 전도는 특정 은사를 가진 일부 성도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라는 이해가 일치한다.

셋째, 전도의 지속성과 공동체적 뿌리를 Newbigin은 모든 전도 활동이 “신앙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다시 공동체로 인도할 때에”³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Guder는 교회 공동체의 일상적 삶이 복음을 향한 지속적 지향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김상현 목사의 70일 전도축제와 365일 전도 시스템은 바로 이 지속성과 공동체적 뿌리를 목회적으로 구조화한 모델이다.

그러나 세 학자의 선교적 교회론과 김상현 목사 모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학문적 정직성을 위해 필요하다.

첫째, 선교 이해의 범위와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다. Bosch·Newbigin·Guder의 선교 신학은 전도를 사회적 책임, 정의, 문화 변혁과 통합된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Bosch는 복음 선포와 사회적 행동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며, Newbigin 역시 복음이 공적 진리로서 사회 전 영역에 관계됨을 규명한다. 반면, 김상현 목사의 전도 중심 모델은 복음 선포와 회심을 전도 사역의 핵심으로 설정하면서 전도의 직접적·명시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서구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포괄적 접근과 구별되는 복음주의적·전도 중심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구조화 방식의 차이: Guder의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모든 구조가 선교

³⁸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227.

적 목적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실천 방식은 각 지역 공동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반면, 김상현 목사의 모델은 전도대 조직, 전도 본부, 70일 전도축제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교회에도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김상현 목사의 전도 중심 모델이 선교신학의 지형 속에서 갖는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명할 수 있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 중심 모델은 Bosch·Newbigin·Guder의 선교적 교회론이 제시하는 핵심 신학적 전제들을 공유하면서도 이를 한국 교회의 구체적 목회 현장에서 직접적·실천적으로 구현한 토착화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서구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통찰을 한국 교회의 전도 사역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김상현 목사의 실천 모델을 통해 이 통찰이 구체적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호보완적 대화를 수행한다.

4.4. 전도의 신학적 정체성: 본질로서의 전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으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통해 교회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맡게 되었다. 또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명을 실제 역사 속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경적 흐름은 전도가 교회의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깊이 연결된 사명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전도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교회를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교회의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라는 점에서 그 신학적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전도는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대한 순종의 행위이다. 교회는 복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도는 인간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며, 교회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Christopher J. H. Wright 는 이러한 관점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교회는 그 계획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라고 주장한다.³⁹ 이러한 이해는 전도를 인간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김세운 역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이 신약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정 민족에게 제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³⁹ Wright, *The Mission of God*, 198.

강조한다.⁴⁰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성경적 흐름을 신학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Christopher J. H. Wright 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해하며, 교회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설명한다.⁴¹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특정 시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명으로 이해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 역시 이러한 성경적 흐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 흐름을 교회론적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회는 단순히 선교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교적 존재이다. Lesslie Newbigin 은 교회를 “그 본질상 선교적인 공동체”로 이해하였으며, Darrell L. Guder 는 이를 발전시켜 교회를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교 자체로 존재하는 공동체로 설명하였다.⁴²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교회의 한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도 이해는 기존 전도학 논의와도 깊이 연결된다. David J. Bosch 는 전도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Missio Dei)에 교회가 참여하는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전도를 교회의 전략이 아닌 신학적 사명으로 재정립하였다.⁴³ 또한 John Stott 는 전도를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전도의 본질을 복음 중심성에 두었다.⁴⁴

⁴⁰ 김세윤, 『바울복음과 선교』, 87.

⁴¹ Wright, *The Mission of God*, 198.

⁴²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227; Guder, *Missional Church*, 4-5.

⁴³ Bosch, *Transforming Mission*, 389.

⁴⁴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39.

따라서 전도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이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이러한 전도 이해를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통합하여 실천적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도는 교회의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본질적 사명이며,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전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전도 중심 교회가 단순한 목회 전략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신학적 요청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도를 교회의 본질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의 체질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현대 선교적 교회론과 깊이 연결된다.

제5장 전도 중심 교회 모델과 목회 전략 (전략적 단계)

5.1. 전도의 원리

5.1.1. 김상현 목사의 전도 원리 분석

전도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나 교회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된 사역이다. 따라서 전도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도의 원리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교회의 전도 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을 단순한 방법론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원리를 회복하는 문제로 이해한다. 그는 교회가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도 방식을 살펴보고 그 원리를 교회의 사역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⁵ 이러한 관점에서 김상현 목사는 전도의 원리를 크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⁴⁵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45.

김상현 목사는 특히 교회가 전도 사역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는 특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나 캠페인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전도 사역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도의 원리를 교회 사역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한다.⁴⁶ 이러한 관점에서 김상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로 이해한다. 예수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러한 사역 방식은 오늘날 교회가 전도 사역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전도는 종종 다양한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의 형태로 논의되지만,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단순한 전도 방법이나 전략을 넘어 하나의 목회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그의 전도 이해는 교회 내부 활동 중심의 전도 개념을 넘어, 복음이 실제 인간의 삶의 공간 속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상현 목사의 전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 지향적 전도 개념(field-oriented evangelism)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전도가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프로그램 중심 활동이 아니라, 세상 속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사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 개념은 전도 사역이 특정한 시기나 활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와

⁴⁶ 김상현, 『나는 전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37.

공동체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회적 방향을 포함한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 개념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현장 전도(Field Evangelism), 전도 체질화(Evangelistic DNA), 평신도 전도 구조(Lay Evangelism System)이다.

첫째, 현장 전도(Field Evangelism)이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에서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전도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는 전도를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전도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회당이나 특정 종교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을과 거리, 집과 시장 등 사람들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김상현 목사는 이러한 성경적 전도 원리를 오늘날 교회의 전도 사역에 적용하며, 전도가 실제 삶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복음이 사람들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현장 전도는 단순한 전도 방법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공간과 방식에 대한 목회적 이해를 의미한다.

둘째, 전도 체질화(Evangelistic DNA)이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가 특정 기간에 진행되는 행사나 캠페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회 구조를 비판하며, 전도가 교회의 문화와 구조 속에 내재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도 체질화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예배와 교육, 제자 훈련, 소그룹 사역 등 교회의 다양한 사역이 전도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향한 방향 속에서 운영될 때 교회 공동체는 지속적인 전도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교회의 특정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된다.

셋째, 평신도 전도 구조(Lay Evangelism System)이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전도 사역을 목회자 중심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역으로 이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는 전도가 일부 전도 전문가나 특정 사역자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체적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광교회는 평신도 전도대를 조직하고 성도들이 실제 전도 현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를 개인의 열정이나 일시적 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김상현 목사의 전도 개념은 현장 전도, 전도 체질화, 평신도 전도 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도 목회 구조를 형성한다. 현장 전도가 전도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전도 체질화는 전도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며, 평신도 전도 구조는 이러한 전도 사역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김상현 목사의 전도 개념은 전도를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적 전도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전도 이해는 현대 한국 교회가 전도 사역을 새롭게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도 사역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실천신학적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5.1.2. 예수님의 전도: 성육신, 관계, 현장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신약성경은 예수의 사역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사역이었음을 보여준다. 예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ckhard Schnabel 은 예수의 사역을 초기 기독교 선교의 출발점으로 설명한다. 그는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사역이었으며 이러한 사역 방식이 이후 교회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⁴⁷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의 사역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김상현 목사는 이러한 예수의 사역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전도 원리를 발견한다. 그것은 성육신의 원리, 관계 형성의 원리, 그리고 삶의 현장 중심의 전도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단순한 전도 방법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는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성육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⁴⁷ Eckhard J.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2 vols.* (Downers Grove, IL: IVP, 2004), 89.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 1:14)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셨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성육신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John Stott 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선교의 본질적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교회의 전도 역시 이러한 성육신적 접근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⁸ 또한 Lesslie Newbigin 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⁹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전도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 전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현 목사는 이러한 성육신 사건을 전도의 중요한 원리로 이해한다. 그는 전도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전도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예수의 사역은 이러한 성육신적 전도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 예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셨으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는 회당뿐 아니라 거리와 마을, 집과 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Gordon D. Fee 는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사역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수의 사역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⁴⁸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30-35.

⁴⁹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222-225.

⁵⁰ 교회성장연구소, 『365 전도체질 부광교회』, 52.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실현되는 사건이었다고 강조한다.⁵¹ 따라서 성육신의 원리는 교회의 전도 사역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적 사역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의 전도 사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예수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방식만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으며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서에는 예수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사역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하였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 방식 가운데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예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러한 관계 중심의 사역은 복음이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인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김상현 목사는 이러한 예수의 사역 방식이 오늘날 교회의 전도 사역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전도가 단순한 전도 기술이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² 따라서 전도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⁵¹ Gordon D. Fee, *Pauline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41.

⁵²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61.

이루어지는 삶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는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의 전도 사역은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수는 특정한 종교적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는 어부들을 부르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가셨으며 세리와 죄인들의 집을 방문하셨다. 또한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사역 방식은 복음이 인간의 삶과 분리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여준다.

Schnabel은 초기 기독교 선교가 특정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예수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⁵³

김상현 목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도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성도들이 직장과 가정, 학교와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사역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예수의 전도 사역은 성육신, 관계 형성, 삶의 현장 중심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교회가 전도 사역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5.1.3. 바울의 전도: 전략적 도시 선교와 팀 사역

⁵³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102.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모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지역을 넘어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선교 사역은 단순한 개인적 열정에 의해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라 복음 확장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선교 활동이었다.

Eckhard J. Schnabel 은 바울의 선교를 초기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확장 단계로 설명한다. 그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단순한 개인 전도 활동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선교 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⁵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도시를 선택하고 선교 팀을 구성하며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Gordon D. Fee 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 복음의 확장과 공동체 형성에 있다고 설명한다.⁵⁵ 바울에게 선교는 단순히 개인을 회심시키는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교회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

김세윤 역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설명한다. 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한다.⁵⁶

바울의 선교 사역을 분석하면 몇 가지 중요한 전도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바울의 선교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도시 중심 선교 전략, 팀 사역, 그리고 문화 적응 전략이다.

⁵⁴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108.

⁵⁵ Fee, *Pauline Theology*, 55.

⁵⁶ 김세윤, 『바울복음과 선교』, 101.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시 중심 선교 전략이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작위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방문한 지역 대부분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와 같은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도시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Schnabel 은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도시 중심 선교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바울이 복음을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 주요 도시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⁵⁷ 도시에서 복음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도시 전략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라 선교적 사고에 기반한 전략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에서 복음이 전파될 경우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Gordon D. Fee 역시 바울의 선교 전략이 도시 중심 전략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⁵⁸ 이러한 방식은 복음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⁵⁷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214.

⁵⁸ Fee, *Pauline Theology*, 78.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단순히 지역 교회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산시키는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복음 확장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케도냐 지역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도시 중심 전략은 바울 선교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후 교회의 선교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팀 사역이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혼자 수행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팀을 구성하여 사역을 진행하였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함께하였다. 초기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였으며 이후에는 실라, 디모테, 누가 등 다양한 동역자들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였다.

Schnabel 은 이러한 팀 사역이 초기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선교가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역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한다.⁵⁹ 이러한 팀 사역은 선교 사역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울의 팀 사역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제자 양육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바울은 디모테와 디도와 같은 젊은 지도자들을 양육하며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사역은 복음 전파와 동시에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김세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단순한 전도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과 지도자 양육을 포함하는 사역이었다고 설명한다.⁶⁰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팀 사역은 교회의 선교 사역이 공동체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⁵⁹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321.

⁶⁰ 김세윤, 『바울복음과 선교』, 145.

팀 사역은 또한 선교 사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할 때 선교 사역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나타나는 팀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선교 사역에도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문화 적응 전략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며 복음을 전달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고전 9:22)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며 사역하였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사용하였다.

Schnabel 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바울이 각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⁶¹ 대표적인 예가 아테네에서의 설교이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성경을 직접 인용하기보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시를 인용하며 복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달할 때 청중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Gordon D. Fee 역시 바울의 선교 사역이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복음의 보편성과 동시에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는 선교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⁶¹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287.

바울의 문화 적응 전략은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선교적 지혜였다. 바울의 전도 원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 중심 선교 전략이다.

둘째, 팀 사역 중심 선교 구조이다.

셋째, 문화 적응 선교 전략이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원리는 초기 기독교 선교가 단순한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2. 전도 구조와 시스템 구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도 원리가 교회의 실제 사역 속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역 구조와 실천 과정이 필요하다. 전도는 단순히 개인의 열심이나 일회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을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이해하면서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도 중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많은 교회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도가

일시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끝나기 쉽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를 위한 체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²

김상현 목사의 전도 사역을 살펴보면 전도는 단순히 “전도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도 사역은 기도와 훈련, 실제 전도 활동, 그리고 사역 점검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 구조는 크게 ‘기도 - 훈련 - 실행 - 점검’이라는 네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2.1. “전도 체질화” 개념의 이론적 구조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전도 체질화”이다. 이 개념은 김상현 목사의 목회 실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언어로, 현장 목회의 경험적 언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단순한 목회적 구호나 경험적 서술에 머물지 않고 학문적으로 유효한 분석 범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이론화 작업이 요청된다.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체질화”라는 개념은 주목할 만한 은유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의 체질(constitution)이 유전적 기질과 생활 습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전도 체질화”는

⁶²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61.

전도가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기반, 조직 구조, 공동체 문화, 실천 방식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즉, 전도 체질화란 전도가 교회의 외부적 활동(doing)에서 교회의 존재 방식(being)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자 그 결과 상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 체질화”는 기존의 전도학 논의에서 주로 강조되어 온 전도의 방법론적 접근이나 프로그램 설계를 넘어, 전도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구조 속에 내재화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실천신학적 개념으로 위치지어질 수 있다. Lesslie Newbigin 이 교회를 본질상 선교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Darrell L. Guder 가 교회를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교 자체로 존재하는 공동체로 설명한 것처럼, 전도 체질화는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을 구체적 교회 현장에서 실현하는 과정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5.2.2. “전도 체질화”의 학문적 정의

본 연구는 “전도 체질화”를 다음과 같이 학술적으로 정의한다.

전도 체질화(Evangelistic Dispositional Formation)란, 전도가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정체성과 조직 구조, 공동체 문화, 그리고 구성원의 일상적 실천 속에 내재화되어,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특정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의 존재 방식 자체로 지속·재생산되는 과정 및 그 결과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전도 체질화는 과정(process)이자 상태(state)이다. 체질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신학적 확신의 형성, 조직 구조의 재편, 공동체 문화의 변화,

개인 실천의 반복이라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일단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자기 재생산되는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다.

둘째, 전도 체질화는 통합적(holistic)이다. 이는 교회의 어느 한 영역 - 예를 들어 조직 구조나 훈련 시스템만 - 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토대, 조직 구조, 공동체 문화, 개인 실천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전도 체질화는 공동체적(communal)이다. 전도 체질화는 특정 개인의 열정이나 은사에 의존하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를 공동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전제한다.

넷째, 전도 체질화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전도 체질화의 핵심 목적은 전도 사역이 특정 목회자의 리더십이나 일회성 캠페인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데 있다.

5.2.3. 전도 체질화의 구성 요소: 4차원 통합 모델

전도 체질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네 가지 핵심 차원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형성된다.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도 체질화의 구성 요소를 신학적 기반, 조직 구조, 공동체 문화, 실천 방식의 네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전도 체질화 4차원 통합 모델”로 제안한다.

<제 1 차원: 신학적 기반(Theological Foundation)>

전도 체질화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은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신학적 기반이다. 이 차원은 단순한 교리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전도에 대한 신학적 확신과 정체성 인식을 포함한다.

부광교회의 사례에서 신학적 기반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구성된다. 첫째, 전도는 교회의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둘째, 전도의 결과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다. 따라서 전도는 성과가 아니라 순종 행위로 이해된다(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셋째,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넷째,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 공동체이며,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

이러한 신학적 확신이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내면화될 때, 전도는 외부에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명이 된다. 신학적 기반이 취약할 경우, 조직 구조나 프로그램을 아무리 정교하게 갖추더라도 전도 체질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점에서 신학적 기반은 전도 체질화의 뿌리 차원에 해당한다.

<제 2 차원: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전도 체질화의 두 번째 차원은 교회의 조직 구조가 전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 차원은 전도를 특정 부서의 활동으로 분리하지 않고, 교회의 기존 조직 전체가 전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합하는 구조적 재설계를 포함한다.

부광교회 사례에서 조직 구조 차원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신앙 공동체 조직(선교회, 속회/목장)을 해체하거나 별도의 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전도 기능과 결합하여 재활성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전도를 특정 부서의 기능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 전체 조직 속에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전도대 조직의 체계적 확대(21 개에서 125 개로)는 개인의 열정이 아닌 시스템 중심의 전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전도 본부의 설립은 전도 행정과 운영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조직적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전도 사역은 특정 목회자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운영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조직 구조 차원에서 전도 체질화의 핵심 원리는 “전도의 탈분리화(de-compartmentalization)”이다. 전도가 조직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조직 단위에 내재된 공통 기능이 될 때, 전도는 교회의 체질이 된다.

<제 3 차원: 공동체 문화(Community Culture)>

전도 체질화의 세 번째 차원은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다. 문화는 조직 구조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공동체의 행동 양식과 가치 체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전도가 진정한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의 변화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분위기, 언어와 내러티브가 전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부광교회 사례에서 공동체 문화 차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 첫째, 전도에 관한 공동체 내러티브의 지속적 형성이다. 설교와 교육, 전도 경험 나눔, 새신자 환영 예배 등을 통해 전도는 공동체의 핵심 이야기(story)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둘째, 전도를 당연한 신앙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는 공동체적 규범이 형성된다. 전도 표어나 태신자 섬김 점검판과 같은 문화적 장치들은 전도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기대와 책임의 문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셋째, 전도 경험의 공동체적 공유와 격려 문화가 형성된다. 전도 달란트 제도, 전도 간증 나눔 등은 전도를 공동체의 축제로 만드는 문화적 기제이다. 넷째, 목회 지도자의 모범이 문화 형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김상현 목사가 직접 전도 현장에 앞장서는 것은

전도가 목회자에게도 본질적 사명임을 공동체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적 행위이다.

공동체 문화 차원이 형성될 때, 전도는 외부적 강제나 의무에서 공동체 내부의 자발적 정체성으로 전환된다. 이 차원 없이는 조직 구조와 훈련 시스템이 있더라도 전도는 여전히 “하는 것”에 머물고 “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제 4 차원: 실천 방식(Practical Implementation)>

전도 체질화의 네 번째 차원은 실천 방식의 일상화이다. 이 차원은 전도가 특정 기간이나 특별 행사에 집중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일상적 삶 속에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실천으로 정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광교회의 실천 방식 차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365일 전도 구조는 전도를 일상적 실천으로 제도화한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전도가 매일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성도들은 전도를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 둘째, 70일 전도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전도 습관 훈련”으로 설계된 체질 형성 프로그램이다. 70일간의 반복 실천을 통해 전도는 의식적 노력에서 무의식적 습관으로 전환된다. 셋째, 아파트 전도, 거점 전도, 관계 전도 등 다양한 실천 형태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한다. 넷째, 경험 중심 훈련(부활절 계란 전도, 굴 전도 등)은 전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반복적 접촉을 통해 전도 자신감을 형성하는 체질화 전략이다.

실천 방식 차원에서 전도 체질화의 핵심 원리는 “반복을 통한 습관화”이다. 습관이 제 2의 천성이 되는 것처럼, 반복적 실천이 축적될 때 전도는 의식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 된다.

5.2.4. 전도 체질화의 형성 과정: 3 단계 발전 모델

부광교회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도 체질화는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심화된다.

<제 1 단계: 각성과 방향 재정립>

이 단계는 전도에 대한 신학적 각성과 함께 교회의 핵심 사명을 재정립하는 단계이다. 목회 지도자의 전도에 대한 신학적 확신이 형성되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선포되며, 교회의 방향이 전도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김상현 목사의 부산 사역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에 대한 신학적 확신 형성, 전도를 프로그램이 아닌 사명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 지도자의 술선수범이 핵심 요소이다.

<제 2 단계: 구조화와 제도화>

이 단계는 각성된 신학적 확신을 교회의 조직 구조와 훈련 시스템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전도 조직의 정비, 훈련 시스템의 구축, 365일 전도 구조의 도입, 전도 본부의 설립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익산 사역의 전도 조직화 시도와 인천 부광교회 초기 사역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조직의 전도 기능화, 평신도 전도 시스템의 구축,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의 형성이 핵심 과제이다.

<제 3 단계: 문화화와 체질화>

이 단계는 조직 구조와 실천 방식이 안정화되면서 전도가 공동체의 문화와 정체성으로 내면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가 더 이상 의무적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된다. 새로운 성도들도 공동체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전도는 자기 재생산적 메커니즘을 갖추게 된다. 부광교회의 성숙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문화의 자발적 재생산, 전도를 통한 공동체 정체성의 지속적 강화, 새신자의 자연스러운 전도 문화 편입이 핵심 지표가 된다.

5.2.5. 전도 체질화를 위한 조직 및 운영 시스템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의 출발점이 인간의 노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기도라고 강조한다. 그는 전도 사역이 단순한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전도 사역은 반드시 기도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도 기도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이해된다. 교회는 전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영혼을 위한 기도 운동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전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독려한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대한 영적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역사하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 사역을 계획할 때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⁶³ 이러한 기도 중심 전도 사역은 전도를 인간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역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기도는 전도

⁶³ 김상현, 『나는 전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75.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적 동기를 형성하고 전도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도가 전도 사역의 영적 기반이라면 훈련은 전도 사역의 실제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현 목사는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전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도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도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부광교회에서는 평신도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도들이 실제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전도 방법을 가르치는 기술 교육이 아니라 전도자의 영성과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자가 먼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⁴ 또한 전도 훈련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거나 전도 과정에서 거절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체계적인 전도 훈련은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고 성도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기도와 훈련을 통해 준비된 성도들은 실제 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개인 전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전도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체질이 되어야

⁶⁴ 교회성장연구소, 『365 전도체질 부광교회』, 82.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전도는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상적인 사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⁶⁵

부광교회에서는 다양한 전도 방식을 활용하여 전도 사역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관계전도, 전도대 활동, 지역 전도 사역 등이 함께 이루어지며 이러한 다양한 전도 활동을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평신도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도 사역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수행하는 사명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교회 전체의 사역으로 확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단순한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광교회에서는 전도 사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도 활동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점검 과정은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점검 과정은 성도들이 전도 사역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공동체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동체적 나눔은 전도 사역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 사역 구조는 ‘기도 - 훈련 - 실행 - 점검’이라는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전도 사역 구조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전도자의

⁶⁵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97.

자세와 전도 전략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전도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영적 준비와 공동체적 구조가 함께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2.6. 365 일 전도 구조와 전도 본부 운영

부광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365 일 전도 구조이다.⁶⁶ 이는 특정 계절에 집중하는 전도 축제를 넘어, 일상적 전도를 제도화한 것이다. 봄(부활절 이후 70 일) · 가을(추수감사절 이전 70 일) 전도축제를 중심으로 하되, 그 사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재편하였다. 기존 목장(감리교 속회) 조직은 자연스럽게 전도팀으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전도는 개인의 열심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구조 속에서 유지되었다. 전도대 조직 확대는(21 개에서 125 개(2025 년)) 개인 열정이 아닌 시스템 중심 운영의 결과이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자의 준비를 개인 역량 개발에서 공동체 체질 형성으로 확장시켰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1년 365 일 매일 전도가 가능하다.

부광교회의 대표적 특징은 1년 365 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기간에만 전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전도대가 운영되는 구조이다. 매일 13-15 개의 전도대가 전도를 나가며, 1 주일에 최소 90 개에서 최대 105 개의 전도대가 운영된다. 하루도 전도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한

⁶⁶ 김상현, 『365 일 전도 체질 부광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25.

이유는 전도대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다. 겹치지 않도록 하고,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나누어 빠짐없이 배정한다. 그리고 날씨 때문에 전도가 멈추지 않도록 실내(지하상가, 아파트, 지하철역, 병원 등) 전도팀을 운영하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부광교회의 전도대는 크게 2개로 나뉜다. ‘부광전도대’와 ‘지역전도대’이다. 부광전도대는 각각 같은 또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현 목사가 부임하기 전 부광교회에는 남·여선교회가 각각 같은 또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상현 목사는 기존에 있던 남·여선교회 조직을 ‘부광전도대’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전도대가 또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데에서 친근함을 갖는다. 한마디로 친구끼리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다. 부광 전도대의 한 대원은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되었으니 함께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러 가는 기분이다”

‘지역전도대’는 교구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존의 목장(속회) 조직이 지역 전도대가 되어 거점을 맡아 전도를 하는 방식이다.

전도는 목회자 중심으로만 하기에는 전도의 한계가 있다. 목회자는 전도 에도 서야 앞장서야 하지만 전도 외에 목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각종 예배와 기도회의 설교, 성도 심방과 상담 등 많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전도대를 점검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목회자를 돕는 전도 본부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365일 전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끌어 갈 평신도 조직인 ‘전도본부’를 조직하였다.

부광교회 전도 본부 사역은 첫째, 전체 전도대 조직을 운영하며 점검한다. 둘째, 전도 물품을 구입한다. 셋째, 전도에 관한 모든 것을 계획한다. 넷째, 목회자 평신도 전도 세미나를 운영하는 전도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부광교회에 전도 본부를 설립한 후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 및 성도 돌봄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전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부광교회가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도 본부는 2004년 초창기에는 2 ~ 3명으로 시작하였고, 2005년 이후로는 12 ~ 15명 정도가 매년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2025년 현재는 평신도 사역자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도 본부 사역자들은 매일 사무실에 나와 전도대 운영을 도와주며 전도대 관리 및 새로운 전도 전략을 기획한다. 전도 본부 구성으로는 전도 대장을 비롯하여 총무팀, 문화홍보팀, 교육팀, 마트팀으로 나뉘어 평신도 팀 사역을 하고 있다. 전도 본부는 평신도 사역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팀 사역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4개의 팀을 구성하였고,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다.

전도 본부 사역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도 본부 대장: 평신도 사역자로 전체 전도대와 전도 본부 팀 사역을 조화롭게 한다.

총무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전도 운영을 진행 담당한다.

문화홍보팀: 전도에 관한 홍보물(전도지, 전도 신문, 현수막, 동영상 제작 등)을 제작하며, 전도 축제 시에 상황 점검 및 교회 내 홍보를 전담한다.

교육팀: 전도학교 운영과 전도 본부 사역자 훈련을 담당한다.

마트팀: 전도 마트의 용품 구입 및 판매를 하며 전도 달란트 축제를 담당한다.

회계: 전도 본부의 모든 예산을 관리한다.

5.3. 부광교회의 실천적 전도 전략

5.3.1. 관계 및 지역 밀착형 전도 모델

전도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사실은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도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 전도는 단순히 개인의 열정이나 일회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도 중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도 사역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 사역을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의 전략적 사역 계획을 강조하는 Aubrey Malphurs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alphurs는 교회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역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은 교회의 사명을 실제 사역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교회의 사역 전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전도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도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관계 전도, 행사 전도, 지역 밀착 전도, 그리고 성도 참여 중심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계 중심 전도이다. 관계 전도는 전도 대상자와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가 단순히 복음을 설명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전도 대상자를 단순한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앙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예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사역 방식은 오늘날 교회의 전도 사역에도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부광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 사역을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직장과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것이 관계 전도의 핵심이다. 부광교회의 관계 전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부광교회의 관계 전도 시스템은 크게 네 단계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관계 형성 단계, 복음 접촉 단계, 초청 단계, 그리고 교회 정착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는 복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전도 대상자가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돕는 과정을 보여준다.

관계 형성 단계: 관계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관계 형성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관계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단순히 교회로 인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부광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통해 전도 사역을 수행하도록 강조한다. 직장과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전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 복음은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 접촉 단계: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복음 접촉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가 복음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복음 접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누거나 교회 공동체의 삶을 소개하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전도 대상자가 복음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부광교회의 관계 전도에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이 강요나 설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도 대상자가 복음에 대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청 단계: 복음 접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초청 단계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여 교회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부광교회에서는 다양한 전도 행사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초청은 관계 전도를 통해 형성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다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따뜻한 환영과 관심을 통해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전도 대상자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 정착 단계: 관계 전도의 마지막 단계는 교회 정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공동체 속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부광교회는 새신자 교육과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교회에 참여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전도 사역이 단순히 교회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부광교회의 관계 전도는 단순히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인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광교회의 관계 전도 시스템은 복음을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 전도 구조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통해 전도 사역에 참여할 때 전도는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광교회의 관계 전도 시스템은 현대 교회 전도 사역에 중요한 목회적 모델을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전도 구조는 복음이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전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전도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전도이다. 행사 전도는 교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 방식이다. 이러한 전도 방식은 관계 전도와 함께 활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접촉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사역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사 전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전도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사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교회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부광교회의 행사 전도는 단순한 프로그램 중심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회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교회는 다양한 전도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히 교회 내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부광교회의 행사 전도는 관계 전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관계 전도를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 행사로 초청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성도들은 자신이 형성한 관계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교회 행사에 초청하며 이러한 초청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행사 전도는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은 종종 종교적인 공간이라는 제한된 이미지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때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보다 친근한 공동체로 인식될 수 있다. 부광교회에서는 이러한 행사 전도를 위해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 집회나 문화 행사,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접촉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사 전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적 참여 구조이다. 행사 전도는 특정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교회의 다양한 부서와 성도들이 함께 행사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면서 전도 사역이 공동체적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동체적 참여는 전도 사역을 교회의 문화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할 때 전도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명이 된다. 또한 행사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도 대상자들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성도들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사 전도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도 방식이다. 문화 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은 교회와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며 이러한 접촉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부광교회의 행사 전도는 관계 전도와 함께 활용되면서 전도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목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 전도를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가 행사 전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도 대상자들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부광교회의 행사 전도는 다양한 교회 행사를 통해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도 방식은 관계 전도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행사 전도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역 구조를 형성하며 전도 사역이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광교회의 행사 전도는 현대 교회의 전도 사역에 중요한 목회적 모델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 전략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역 밀착 전도(Local Community Evangelism)이다. 지역 밀착 전도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식이다. 이러한 전도 방식은 교회를 지역사회와 분리된 종교 공동체로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김상현 목사는 교회의 전도 사역이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존재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전도 사역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 밀착 전도의 핵심은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종종 종교적 집단으로만 인식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할 때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부광교회는 이러한 지역 밀착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역은 단순한 사회 봉사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해된다. 특히 지역 밀착 전도는 교회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교류할 때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복음은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지역 밀착 전도는 관계 전도와 행사 전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성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형성한 인간관계는 관계 전도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행사는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도 사역은 특정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부광교회의 지역 밀착 전도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와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사역은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밀착 전도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역 구조를 형성한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도 사역이 특정한 개인이나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결국 부광교회의 지역 밀착 전도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이웃을 섬길 때 복음은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도 사역은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부광교회의 지역 밀착 전도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략이다. 이러한 전도 방식은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공동체로 자리 잡도록 돕고 복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밀착 전도는 관계 전도와 행사 전도와 함께 활용되며 교회의 전도

사역이 특정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5.3.2. 70 일 전도축제와 성도 참여 구조

부광교회는 전도를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본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도를 일회성 행사로 만들지 않고 70 일 간의 축제로 만들었다. 70 일 간의 전도축제 기간 내내 기도하는 중보 기도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 교인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 사명에 집중하게 만든다. 전도축제는 70 일간 1년에 봄·가을로 2회 진행되며, 봄 전도축제는 부활절 다음 주일부터 70 일간, 가을 전도축제는 추수감사절 한 주전에 70 일이 끝나도록 진행되며, 단순 행사형 집회가 아니라, 전도 체질화 훈련으로 설계되어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 축제는 김상현 목사가 부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2004년 5월 2일 ~ 7월 11일의 기간 동안 처음 시작하였다. 그 이후 해마다 봄·가을에 70 일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전도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전 교인으로 하여금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여 전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도축제 기간인 70 일 동안 교인들로 하여금 매일 전도하여 전도 체질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광교회의 전도축제는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전도 습관 훈련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하면 집회, 세미나 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면 전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행사와 같이 전도 분위기도 끝나는 경우가 많다. 열 번의 이론적인 세미나보다 단 한 번의 전도 실천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부광교회의 전도축제는 집회나 세미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일 전도대가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70 일 동안 매일 목장(속회) 중심으로 아파트나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 훈련이 된다. 전도 훈련에서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서의 실제 훈련이다. 교인들은 70 일 동안 아파트와 거리 전도를 통해 전도에 대한 습관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전도축제 기간 동안 전도는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째, 아파트 전도: 아파트 전도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도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파트 전도는 전도지 비닐봉지를 만들어 그 속에 전도지와 사탕을 넣고 현관 문고리에 걸어 놓는 것으로 전도를 한다.

둘째, 거점 전도: 거점 전도는 교회 주변 지역에서 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택하여 시간을 정해 놓고 날마다 전도를 나가 전도지와 간단한 전도용품(음료, 물티슈, 티슈, 사탕 등)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는 지역 사회에 교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미지 메이킹 전도이다. 각 교구가 맡은 거점 전도 장소는 <표 5-1>과 같다.

교구	전도장소
1 교구	부평 1 동주민센터
2 교구	부평시장
3 교구	하이마트
4 교구	부평역

5 교구	문화의 거리
6 교구	지하상가
7 교구	하나은행

봄 전도 축제 거점(거리 전도 장소) <표 5-1>

셋째, 관계 전도: 전도 축제 2달 전부터 태신자(전도 대상자)를 걱정 한 후 태신자를 위해 교구별과 목장(속회)별로 기도하게 한다. 태신자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걱정 한 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태신자와 접촉을 하느냐이다. 전도축제 기간 동안 담당 목회자들은 태신자를 걱정 한 교인들이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섬김 횟수를 파악한다. 그리고 섬김 횟수는 교회 벽에 설치된 ‘태신자 섬김 점검판’에 기록된다. 개인이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것을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부광교회의 전도축제는 기도 전도이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방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광교회는 전도축제 기간 동안 전도자들을 위해 2가지 형태의 중보기도 전도대를 운영한다. 하나는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하여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매일 오전 10시 ~ 낮 12시까지 운영하는 중보 기도 전도대이고, 또 하나는 교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루에 3번(오전 10 ~ 11시, 오후 2 ~ 3시, 밤 9 ~ 10시) 1시간씩 기도하는 중보 기도 전도대이다.

김상현 목사가 교인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 가능하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어떤 전도 방법이나 전략보다 중요하다.” 라고 한다.

부광교회는 전도 출범 예배를 드림으로 70 일간의 전도 축제를 시작한다. 전도 출범 예배는 교회 전체에 전도 축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동시에 온 교인들이 전도대가 되어 결단하는 시간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축제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0 일간의 전도 체질화 훈련으로 교인들이 관계 전도와 현장 전도(거점 전도 및 아파트 전도)를 함께 병행하는 기간이 된다. 이것은 기존의 전도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준다.

둘째, 새가족 관리에 효과적이다. 총동원 주일 하루에 새가족이 몰리면 관리하기 어려운데, 부광교회는 전도축제 기간에 매주 20 ~ 40 명 정도가 등록하여 새가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다.

셋째, 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70 일 동안 초청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며 초청하기에 당사자들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고려된다.

넷째, 전도 체질화 훈련이 중심이므로 교회 규모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전도축제를 통해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도 참여 중심의 전도 구조이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 사역은 목회자나 특정 전도 전문가의 사역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특정한 개인의 열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평신도 전도 참여, 전도대 조직, 전도 문화 형성, 그리고 전도 체질 교회라는 네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신도 중심 전도 구조이다. 전도 사역이 특정한 목회자나 소수의 전도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교회의 전도 사역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성도가 전도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전도 사역을 특별한 사람들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전도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신앙적 사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광교회는 평신도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도학교와 전도제자학교, 그리고 영적군사학교와 같은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은 단순히 전도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전도자의 신앙과 사명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평신도 전도 참여는 전도 사역을 교회의 문화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 사역을 수행할 때 전도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이 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구조 가운데 하나는 전도대 조직이다. 전도대는 전도 사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서 성도들이 함께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도대는 정기적인 전도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전도대 활동은 전도 사역을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도대는 전도 사역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적인 전도 활동은 쉽게 중단될 수 있지만 공동체적 전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전도대 조직은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대 활동은 단순한 전도 활동을 넘어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도들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전도 문화의 형성이다. 전도 사역이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의존할 경우 전도 사역은 일시적인 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도 사역이 교회의 문화로 형성될 때 전도는 교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김상현 목사는 교회가 전도 중심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도 문화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를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의미한다. 부광교회에서는 설교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전도 사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전도를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게 된다.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전도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전도 사역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도 문화는 교회의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전도 체질 교회이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도 체질 교회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전도 체질 교회에서는 전도 사역이 특정한 부서의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배와 교육, 소그룹 모임, 그리고 다양한 교회 사역이 전도와 연결되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이러한 전도 체질 교회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도 사역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삶과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성도 참여 구조는 평신도 전도 참여, 전도대 조직, 교회 전도 문화 형성, 그리고 전도 체질 교회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특정한 개인이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5.4. 전도자의 형성과 훈련

전도 사역은 단순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깊이 연결된 사명이다. 따라서 전도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 방법이나 전략뿐 아니라 전도자가 어떤 신학적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김상현 목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 사역을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자의 신학적 이해와 삶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로 설명한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는 전도가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행사나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단순히 전도 부서나 특정 성도들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으로 이해된다.⁶⁷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정의는 전도의 목적이 단순히 교회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교인 수를 증가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신앙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역으로 이해한다. 그는 전도 사역이 특정한 전도 전문가나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개인의 열심에 의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김상현 목사의 전도 신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삶으로 확장되는 공동체적 증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도는 단순히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가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교회의 삶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⁶⁷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37.

교회 공동체의 삶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에서 전도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도가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과 인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도자는 먼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며 그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로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전도자는 복음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둘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다. 전도는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는 공동체적 사명 의식이다. 전도자는 개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전도자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훈련과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자가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체계적인 전도 훈련과 영적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전도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전도자의 신앙과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이 된다.

결국 김상현 목사의 전도 신학은 전도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하고 이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도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며, 전도자는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전도 신학과 태도는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전도자의 준비와 훈련, 그리고 전도자의 자격과 기본 자세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전도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신학적 이해와 태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4.1. 전도자의 자격, 태도 및 신학적 정립

전도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도 방법이나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도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과 태도에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다. 따라서 전도 사역의 열매는 전도자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공동체적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을 단순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전도를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는 단순히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는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전도가 단순히 언어적 전달이나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전도는 복음을 설명하는 행위 이전에 복음을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된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날 때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인격, 영성, 그리고 공동체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도 사역의 외적인 방법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의 내적 기반을 형성한다.

전도자의 첫 번째 자격은 인격이다. 전도 사역은 단순히 복음을 설명하는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도자의 인격은 전도 사역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예수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삶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요소였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자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도자가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그 복음은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 반대로 전도자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도 사역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전도자는 정직과 사랑,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격적 삶은 전도 사역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복음이 삶 속에서 증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전도자의 두 번째 중요한 자격은 영성이다. 전도 사역은 단순한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단순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기도는 전도 사역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전도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참여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한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전도자는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 훈련 과정에서도 이러한 영성 훈련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전도제자학교와 영적군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적 훈련은 전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도자의 세 번째 중요한 자격은 공동체성이다. 전도 사역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가 특정한 전도 전문가나 목회자의 사역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전도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며 모든 성도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도자는 개인적인 열심만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도 사역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적 전도는 교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는 단순한 개인 전도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도자의 자격과 기본 자세는 인격, 영성,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전도자는 복음을 단순히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도는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과정이며 이러한 삶 속에서 복음은 더욱 분명하게 증언된다. 이러한 전도자의 태도와 자세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전도 전략과 방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전도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자의 삶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준비와 훈련, 그리고 전도자의 기본 자세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열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영적 성숙과 사명 의식을 형성하는 구조적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 사역의 전략적 계획을 강조하는 Aubrey Malphurs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alphurs는 교회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교회의 사역 전략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역자는 신앙과 사명 의식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⁶⁸ 이러한 관점은 전도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도 프로그램보다 전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부광교회의 전도 훈련 구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부광교회는 전도학교, 전도제자학교, 그리고 영적군사학교와 같은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 평신도 전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특정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광교회의 전도 훈련 시스템은 단순한 전도 프로그램의 운영이 아니라 전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⁶⁸ Aubrey Malphurs, *Strategic Planning for Ministr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45-52.

구조적 사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자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공동체적 사명 의식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교회의 전략적 사역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4.2. 부광교회 전도 훈련 시스템과 매뉴얼 분석

전도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전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도 사역이 체계적인 훈련 구조 없이 개인의 열심이나 일회적인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도 사역이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도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김상현 목사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도 사역의 핵심은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도자를 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도가 일부 열심 있는 성도들의 활동으로 제한되거나 특정 기간 동안만 강조되는 행사로 끝나기 쉽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⁹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위해서는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넘어 ‘체질’을 가져야 한다고 표현한다. 부광교회의 전도 준비와 훈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

⁶⁹ 김상현, 『전도 중심 교회로 바꾸라』 (서울: 두란노, 2013), 52.

체질로의 변화된 교회’ 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도가 체질이 된 것이다. 부광교회도 처음부터 전도 체질이 아니었다.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를 전도 체질로 만들어야만 했다. 부광교회 앞마당에 들어서면 ‘5321’ 이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장로는 5명, 권사는 3명, 집사는 2명, 성도는 1명 이상에게 전도하라는 의미로서, ‘교회는 혼자 오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려오는 곳’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부광교회는 교회 사역 중 전도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단회적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구조적 훈련 과정을 진행하였다. 부광교회의 전도 훈련은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두려움 극복을 위한 경험 중심 훈련이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광교회는 부활절 계란 전도, 추수감사절 굴 전도 등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전도 방식을 활용하였다.⁷⁰ 이 훈련의 목적은 단기간의 등록자 증가가 아니라, 부광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 경험의 축적”이다. 반복적 접촉을 통해 성도들은 ‘전도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해체하게 되었다. 성도들 자신이 직접한 경험은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둘째, 구조적 훈련으로 365일 전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부광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365일 전도 구조이다.⁷¹ 이는 특정 계절에 집중하는 전도축제를 넘어, 일상적 전도를 제도화한 것이다. 봄(부활절 이후 70일)·가을(추수감사절

⁷⁰ 교회성장연구소, 『365 전도체질 부광교회』, 19.

⁷¹ Ibid., 25.

이전 70 일) 전도축제를 중심으로 하되, 그 사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재편하였다. 기존 목장(감리교 속회) 조직은 자연스럽게 전도팀으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전도는 개인의 열심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구조 속에서 유지되었다. 전도대 조직 확대는(21 개에서 125 개(2025 년)) 개인 열정이 아닌 시스템 중심 운영의 결과이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자의 준비를 개인 역량 개발에서 공동체 체질 형성으로 확장시켰다.

셋째, 동기 부여와 격려 체계이다. 전도 체질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저항과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문화에 익숙한 교회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 김상현 목사는 이를 체질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 반응’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갈등을 실패의 신호로 보지 않고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전도자는 일시적 어려움에 낙심하기보다 장기적 비전을 붙들어야 한다. 지도자의 지속적 비전 선포는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부광교회는 전도 달란트 제도 등을 통해 전도 참여자를 격려하였다. 이는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공동체 인정의 구조였다. 김상현 목사는 등록보다는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전도 현장에 나가고 동참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반복적으로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는 전도자의 준비가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영적 동기 형성 과정임을 보여준다. 김상현 목사는 끊임없이 전도 현장에 참여하게 하여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행사 중심의 일회성 전도는 일시적 열정을 남기지만, 반복 훈련은 전도 체질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전도 체질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저항과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문화에 익숙한 교회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 김상현 목사는 이를 체질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갈등을 실패의 신호로 보지 않고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전도자는 일시적 어려움에 낙심하기보다 장기적 비전을 붙들어야 한다. 지도자의 지속적 비전 선포는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광교회의 전도 훈련 시스템은 전도 사역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전도 사역은 특정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삶과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 훈련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제자훈련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전도자는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도 훈련은 전도자의 신앙과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의 핵심이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 훈련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도 훈련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가 전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선교적 공동체로 형성된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은 전도를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해하게 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체계적인 전도 훈련 시스템이다. 부광교회는 전도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실제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부광교회에서는 다양한 전도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전도학교이다. 전도학교는 성도들이 전도 사역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전도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훈련 과정이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전도 방법을 배우는 기술 교육이 아니라 전도자의 신앙과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훈련이 단순히 전도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도자가 먼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 훈련은 전도자의 신앙과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학교에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전도의 성경적 근거를 교육하는 동시에 실제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도 방법을 훈련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제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전도 훈련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연결되어 진행된다. 예배와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 과정 등 교회의 여러 사역이 전도 사역과 연결되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평신도 중심 전도 구조이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목회자나 특정 전도 전문가의 사역으로 제한될 경우 교회 전체의 전도 사역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도 사역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⁷² 이러한 관점에서 부광교회는 평신도 전도자를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는 다양한 전도 훈련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⁷² 김상현, 『Power 전도 중심교회』, 61.

평신도 전도자 양성 과정은 단순히 전도 방법을 배우는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는 성도들이 전도 사역에 대한 사명 의식을 형성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영적 훈련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전도 사역을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해하게 된다. 또한 부광교회에서는 전도대와 같은 조직을 통해 평신도 전도자들이 실제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전도대는 정기적으로 전도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성도들은 실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특정한 개인의 열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 사역이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며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⁷³ 이를 위해 부광교회는 전도 사역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 사역이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도 사역은 교회의 다른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배와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 과정 등이 전도 사역과 연결되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중심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전도 사역 구조는 전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회 공동체가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전도는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며 성도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⁷³ 교회성장연구소, 『365 전도체질 부광교회』, 87.

전도대를 통해 부광교회 교인들에게 전도의 체질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다. 교인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1분 이상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현장 메시지 전도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전도 학교의 시작 동기이다.

처음 전도 훈련은 전도폭발 훈련을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하였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전도폭발 훈련은 전도의 주요 동력층인 교회 안의 40-65세 여성 교인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도리어 전도에 대한 두려움까지 갖게 되었다. 전도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쉬우면서도 두려움을 떨칠만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했다. 이것이 ‘부광전도학교’이다. 이렇게 시작한 부광전도학교는 부광교회 교인만 아니라 현재는 부광전도학교에 대한 소문이 교회 밖으로 흘러 7기 부터는 타교인도 참여하는 전도 제자 학교가 되었다.

전도학교는 교인들을 강력한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8주 과정의 실습 중심의 집중 훈련 과정이다. 전도학교는 8주 과정으로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8주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outreach를 진행한다. 전도학교 과정은 “전도는 쉽고”, “전도는 하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따라서 전도학교에서는 60세 - 67세 교인도 수료 가능하다. 그러나 전도훈련이 쉽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전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것이다. 전도학교는 현장실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수료하면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전도학교를 수료한 교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전도가 쉽다는 것, 전도가 재미있다는 것이다. 부광교회를 보면

전도학교를 수료한 교인들이 해마다 전도를 꾸준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도학교의 커리큘럼은 <표 5-2>와 같다.

	강의 제목	시간
1 강	1) 전도는 영적전쟁 2) 현장전도	오전 10 시 ~ 오후 1 시
2 강	1) 땅 밟기 전도 2) 영적지도 그리기	오전 10 시 ~ 오후 1 시
3 강	1) 어머니! 현장접근법 2) 현장전도	오전 10 시 ~ 오후 1 시
4 강	1) 나의 복음(1) 2) 현장전도	오전 10 시 ~ 오후 1 시
5 강	1) 나의 복음(2) 2) 현장전도	오전 10 시 ~ 오후 1 시
6 강	1) 반대 질문법 연습 2) 현장전도	오전 10 시 ~ 오후 1 시
7 강	1) 현장전도 이론 2) 전도실습	오전 10 시 ~ 오후 1 시
8 강	OUTREACH	오전 10 시 ~ 오후 1 시

부광전도학교 커리큘럼 <표 5-2>

전도학교는 매 회마다 10명 ~ 15명의 소수인원을 모집하여 진행한다. 처음 전도학교를 시작할 때 40명이 넘는 인원을 모집하여 교육했더니 교육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 이후로는 한 사람을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엄격히 15명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전도는 반복만큼 좋은 훈련 방법이 없다. ‘영적군사학교’는 전도학교를 수료한 전도자들이 전도자의 삶을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훈련하며, 전도자로서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정이다.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전도학교를 수료한 전도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전도 방법이나 메시지를 잃어버리거나 전도의 열정이 퇴색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광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메시지 훈련과 그동안 새롭게 변화된 전도 방법 등의 훈련을 ‘영적군사학교’를 통해 하게 된다. 영적군사학교의 훈련 대상자는 전도학교를 수료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적군사학교의 커리큘럼은 다음 <표 5-3>과 같다.

		강의 제목	과제	시간
1 강	이론	1)어머나! 현장접근 2)나의 복음(1) 3)간증	1. 한 주간 성경묵상 (창 1:27, 롬 3:23) 2. 나의 복음쓰기(1)	오전 10 시~오후 2 시
	현장실습	1:1 거리전도		
2 강	이론	1)나의 복음(2) 2)현장전도	1. 한 주간 성경묵상 (요 3:16, 요 1:12)	오전 10 시~오후 2 시

	현장실습	1)지하철 전도 2)1:1 전도	2. 나의 복음쓰기(2)	
3 강	이론	1)나의 복음(3) 2)간증 3)너무 메시지	1. 한 주간 성경묵상 (요 14:6, 마 11:28) 2. 나의 복음쓰기(3)	오전 10 시~오후 2 시
	현장실습	거점전도		

영적군사학교 커리큘럼 <표 5-3>

5.5. 전도 실행 모델 및 사례 분석

전도는 단순한 열정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만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로 “전도 동력화 전단계”를 제시하며, 교회가 전도 체질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 과정을 강조한다.

전도 동력화 전단계는 교회의 전도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사회와 교회 환경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조사와 환경 분석을 실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교회 역시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교회의 내부 구조를 이해해야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김상현 목사는 전도가 단순히 개인 열정에 의존하는 사역이 아니라, ‘전략적 공동체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역을 분석해야 한다.

- 첫째, 지역 사회 분석
- 둘째, 지역 교회 분석
- 셋째, 교회 내부 분석

이 3가지 분석은 교회가 전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이후 전도 동력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이 된다.

전도 동력화 전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지역 사회에 대한 분석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구조, 주거 형태, 경제 수준 등을 분석함으로써 전도 대상과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광교회가 위치한 부평 지역의 경우 약 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약 30만 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종교 인구를 분석한 결과 약 16만 명이 기독교인이며 약 34만 명이 비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해당 지역에 여전히 많은 전도 대상자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부평 지역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주변의 아파트 세대를 분석하였고, 분석한 아파트 세대수는 <표 5-4>와 같다. 교회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전도가 단순히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생활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역임을 보여준다.

아파트	세대수	아파트	세대수
동아	7000	뉴서울	800
우성	2773	한신희	703
옥일	270	한양, 한양 7 차, 8 차	1300
한국	180	한신	400
대림	1470	부평대우	280
청천대우	2257	청천금호	2539
한화	2024	부개주공	5600
현대	6900	경남	3830
두산위브	570	그외	

부평구 관내 아파트 세대 현황 <표 5-4>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경제적 특성이다. 부평 지역은 크게 2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째,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편이다. 둘째, 새롭게 형성된 아파트 단지 지역은 중산층 가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구조는 전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구제와 사회복지 사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으며, 중산층 중심 지역에는 가정 중심의 관계 전도가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 분석을 통해 교회는 단순히 인구 통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문제와 필요’를 발견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경우 지역 분석 과정에서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광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확대하였다. 노인대학 운영, 무료 급식 사역, 지역 봉사 활동.

특히 부광교회의 노인대학 사역은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어 초기 약 70 명이 참여하던 프로그램이 이후 약 800 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역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 사회와 교회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며, 전도의 접촉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 사회 분석이 단순한 자료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실제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도 동력화 전단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정은 지역 교회 분석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교회는 서로 다른 목회 전략과 사역 방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 교회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사역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부광교회가 위치한 부평 지역에는 이미 여러 대형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부 교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교인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광교회가 동일한 방식의 목회 전략을 사용한다면 경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상현 목사는 지역 교회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졌다.

- 지역 교회들은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가?
- 지역 교회들이 하지 않는 사역은 무엇인가?
- 부광교회가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역 영역은 무엇인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전도를 실시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였다. 이에 따라 부광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차별화된 사역으로 “365 일 전도하는 교회” 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 전략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전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결국 지역 교회 분석은 교회가 자신만의 독특한 사역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도 동력화 전단계의 마지막 과정은 교회 내부 분석이다. 이는 교회가 자신의 인적자원과 조직 구조를 이해하고 전도에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회 내부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인들의 연령 구조이다. 교회마다 연령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 전략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구는 청년과 장년층이 많은 반면, 다른 교구는 노년층이 중심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전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 젊은 세대가 많은 교구 → 청년 전도 전략
- 중장년층 중심 교구 → 가정 중심 전도
- 노년층 중심 교구 → 노인 사역 중심 전도

따라서 교회는 연령 구조 분석을 통해 각 교구의 특성에 맞는 전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교인들의 거주 지역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교인들이 특정 아파트 단지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전도 사역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부광교회의 경우 교인들이 여러 아파트 단지에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아파트 중심 전도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교인들의 생활권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전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 구조도 중요한 분석 요소이다.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자들은 교회의 핵심 리더십을 형성하며 전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평신도 리더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 전도 리더 발굴
- 직분자 중심 전도 조직 구성
- 평신도 전도 훈련 강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회는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전도 동력화 전단계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다.

첫째, 이는 전도 사역을 전략적 사역으로 이해하게 한다. 전도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역이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전도 동력화 전단계는 교회가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돕는다. 교회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 필요에 응답하는 사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셋째, 교회 내부 분석을 통해 평신도 중심 전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전도 사역이 목회자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결국 전도 동력화 전단계는 교회가 전도 중심 교회로

전환되기 위한 기초 설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전도 동력화 과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3 가지 분석을 마친 후 김상현 목사는 전도가 공동체사역으로써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전도특공대’를 두지 않고, “모든 교인이 전도대”라는 구조를 갖는다. 모든 교인이 전도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존 교회의 조직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회 조직과 목장(속회) 조직에는 모든 교인들이 소속이 된다. 즉, 교인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는 ‘부광전도대’와 목장(속회)은 ‘지역전도대’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지역전도대는 기존 목장(속회)가 전도대가 되는 방식이다. 즉, 1 교구 00 목장(속회)가 1 교구 00 지역전도대가 되는 것이다. 지역전도대는 2025년 총 48 개의 전도대가 조직되어 있다.

지역전도대는 전도축제 기간에 거점 전도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전도대는 거점 지역에 일주일 한 번씩 70 일동안 계속해서 전도용품(전도지, 음료, 물품)을 나누면서 관계를 맺는 전도 방법이다. 전도대가 거점, 장소를 정해 놓고 전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거점의 주변 상인들은 전도대가 늦거나 나오지 않으면 소식을 물으며 “무슨 일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해 준다.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는 목장(속회) 전체가 지역전도대가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에 나가도록 조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도대를 통해 전도가 체질화가 되게 한다.

부광전도대는 각 전도대마다 요일과 전도 장소가 지정이 되어있다. 하나의 전도대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서 전도를 한다. 부광전도대는 같은 교회의 선교회와 기관이 하나의 전도대로 조직된다.

부광교회는 나이대로 선교회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70년생 성도들이 하나의 선교회로 조직이 되고, 각 선교회가 부광전도대가 되는 것이다. 2025년 현재 부광전도대는 총 77 전도대가 조직되어 있다.

모든 조직의 리더가 중요하듯이 전도대를 운영하는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 전도대 대장과 리더에 따라 대원들은 대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리더가 열정이 없거나 소극적일 경우 대원들의 전도 활동과 참여가 중단될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전도대 운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대 대장을 누구로 세우느냐이다. 부광교회는 전도대 대장을 두 가지 방법으로 임명한다. 첫째는 지역 전도대 대장은 지역을 담당하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서 검증된 대목자(구역장: 5 ~ 7개 속회를 관리)를 대장으로 임명한다. 둘째는 부광전도대 대장이다. 부광전도대는 선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전 년도의 선교회 회장은 그 해의 부광전도대 대장으로 임명된다. 이전 년도 선교회장을 전도 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부광전도대 대장은 1년의 검증 절차를 가진다. 즉, 1년 동안 자연스럽게 리더로서 훈련을 받고 지도력을 검증받는 시간을 가지므로 전도대장을 임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도 대장의 역할은 전도 대원 관리(전도 참여 독려), 전도 일정 관리, 전도대 기도회 인도(30분), 전도 현장 인도, 전도 보고서 작성을 한다. 즉 전도 대장은 평신도 리더이다. 초기에는 목회자가 중심이었지만, 전도 훈련을 통해 평신도

리더를 전도 대장으로 세웠다. 부광교회 전도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전도 사역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각 전도대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부광교회 100 개가 넘는 전도대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 전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동일한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도 보고서를 통해 전도대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에 전도 대장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하고 한 주간의 사역을 점검하고 중보 기도회를 갖는다. 즉, 부광교회의 전도대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김상현 목사 부임 초기시절 부광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도 체험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활절 - 부활란 나눔 전도: 전 교인을 전도 훈련하기 위해 부활절 전, 생활 속에서 전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목장(속회)별로 200 개의 계란을 준비하게 했다. 이때 전교인이 준비한 계란의 수는 총 40,000 개였다. 부활절 당일 부광교회 전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했다. 처음 부활란을 나누어 줄 당시만 해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망설이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부활란 전도 이후에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전도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진 교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를 불어넣게 되었다. 즉, 부활란 전도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전도 초기 훈련이며 전교인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회에 전도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실제로 전도는 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렵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 현장에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활란 전도의 가장 큰 효과는 부활란 전도

이전까지는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전도가 어렵다는 인식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나도 전도 할 수 있다” 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추수감사절 - 귤 나눔 전도: 추수감사절에는 부활절 전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귤 나눔 전도를 진행한다. 먼저 한 목장(속회)에서 귤 2 박스 이상을 헌물 하도록 한다. 이렇게 교인들의 헌신으로 모인 귤은 추수감사절 전날 교구별로 모여서 귤을 포장한 후(귤 포장은 교회에서 제작한 봉투에 귤 두 개와 전도지를 넣는다.) 추수감사절 당일에 전교인이 교구별로 목장(속회)별로 맡은 지역에 나가서 귤을 나누어 주게 한다.

이렇게 2004 년부터 시작된 대그룹 전도는 현재 2025 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평소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의 교인들까지도 전도에 자신감이 생겨 전도 동력화 시키게 되었으며, 귤과 부활란 등 전도 물품을 제공하는 전도 헌신자들도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봄 부활란 전도와 가을 추수감사절 귤 나눔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1 단계 훈련을 거쳐 2 단계 훈련으로 전도대를 통해 전도체질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전도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1년에 2 번 온 교인들(전도대)이 모두 모여 달란트 축제를 진행한다. 이 축제는 많은 교회들에서 운영하는 교회학교의 달란트 시장을 모델로 하는데, 전도 본부에서 선물과 특별 물품을 구입하여 상반기(7 월)와 하반기(12 월)에 진행한다. 교회 본당(대예배실) 앞 로비에 달란트 물품들을 주일 예배(저녁) 후에 살 수 있도록 진열한다. 예배에 오는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예배실 앞 공간이나, 예배실 뒤쪽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달란트는 전도축제 기간에 전도에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 지급한다. 등록이 아니라, 전도 자리에 참여하면 달란트를 주는 것이다.

달란트 축제의 목적은 전도를 해서 불신자를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강조하는 김상현 목사의 전도 목회 비전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전도대에 참여하면 그 참여 횟수에 따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30 ~ 150 달란트를 소유하게 된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도 참여 개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만한 물품이 있어야 한다.

달란트 축제 물품은 교회 예산으로 구입을 하지만, 교인들의 기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직장과 사업으로 인해 전도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는 달란트 축제 물품 기증을 권면한다.

또한 부광교회는 전도대의 전도뿐 아니라, 지역과 밀착 관계를 이루면서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 ‘부광노인대학’을 사단법인으로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고령화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교회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현실 사회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며 이를 통한 선교(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부광교회는 기존의 교회 자체 프로그램이었던 ‘노인학교’를 김상현 목사 부임 이후 ‘부광노인대학’으로 새 출발하였다. 부광노인대학을 통한 교회의 노인복지목회의 목적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은 ‘전도’이다. 둘째는 봉사이다. 셋째는 교육이다.

교회가 사회적 과제인 고령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효 사상을 확산시키고, 소외된 노인들을 돌보며 건강한 인생관 속에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복음 전파의 접착점과 같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신뢰와 공적 인정을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광노인대학은 65세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입학부터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1년 2학기제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다. 입학 후 3년을 수료하면 졸업하게 되며, 그 이후 대학원 2년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며, 대학원까지 모두 졸업할 경우 ‘평생수강권’을 준다. 현재 4개 분야(어문학부, 예술학부, 건강학부, 교양학부) 31개 학과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한 교회의 시대적 대안으로 부광노인대학이 세워지고 설립 4년 만에 70여명에서 1,300명으로 성장하였다. 부광교회의 노인대학은 노년 사역이 교회 내의 프로그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서 전도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봉사 사역: 사단법인 ‘행복한 사람들’ : 사회봉사의 필요성은 교회는 지역 사회를 벗어나서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전도) 대상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또한 변화시켜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장소가 바로 지역 사회이기 때문이다.

부광교회가 속해 있는 부평 지역은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비율이 높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며, 노인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먼저 지역 어르신들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행복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무료식사 사역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르신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여서 화요일은 교회 식당에서, 목요일은 교회 인근의 공원에서 섬김의 사역을 진행한다. 그런데 행복한 밥상을 진행하면서 공원에서 진행되는 무료 식사에 건강한 분들만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은 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도시락 사업을 추가해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그런 분들을 찾다 보니 목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어 목욕 봉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머리를 다듬어 주는 이·미용 봉사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사역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 내의 사회봉사 사역을 사단법인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부광교회의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교인들의 개인 후원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향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도우면서 정기적으로 만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섬김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와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자원 봉사자들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자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뿐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서 참여하는 이들도 생기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 졌다. 사랑 실천은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된다.

‘행복한 사람들’의 주요 사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무료 급식	부평구 노인 및 저소득층(1,000명 이상 식사)
쪽방 지원	쪽방 거주 취약계층(130여명)
반찬 지원	인천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90가정)
이·미용 지원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저소득층
교복 지원	쪽방 지역 거주 진학 아동(20명)
독거노인 후원	인근 거주 독거노인(16명, 월 10만원)
소년소녀가장 후원	소년소녀 가장 (10가정, 가정당 10만원)
공동 김장 지원	취약지역 거주 주민(150가정)
목욕 지원	취약계층 위생 관리 지원
재가장기요양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가사·신체활동)
합동결혼식	저소득층 및 장애인(GM대우 협력)
푸드마켓	부평구청 선정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 유지 상담 및 교육 지원

행복한사람들 사역 내용 <표 5-5>

중보기도 사역: ‘24365’ 기도 사역: 부광교회는 전도를 영적 전쟁으로 여기기에 기도를 쉬지 않는다. ‘24365’는 “24 시간 365 일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불을 붙이자”는 중보기도 운동이다. 부광교회는 중보기도실을 개인 기도실과 소그룹(5-10 인실) 기도실을 운영한다. 24 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기 위해, 전도대 대장을 세우듯이, 중보기도 대장과 팀장을 세워 각 요일, 각 시간대별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봄·가을로 진행되는 70 일 전도축제 기간에는 각 2 회씩 5 일간(월요일~금요일) 24 시간 릴레이 전교인 금식기도회를 진행한다. 부광교회는 전도뿐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끔 해서 ‘기도’ 하는 것도 전도로 활용이 된다. 그리고 교회는 더 나아가 기도가 응답 되는 것으로 소문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상현 목사의 전도 철학이다.

5.6. 전도 체질화 교회 모델(EDF Model)의 실천신학적 제안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Osmer 의 네 가지 과제-기술적, 해석적, 규범적, 실천적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적 통찰은,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특정 방법론이나 목회 프로그램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전도가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조직 구조·공동체 문화·일상적 실천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로 내재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이러한 통찰을 경험적 관찰과 서술의 수준에 머물게 한 반면, 본 연구는 이를 하나의 재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실천신학적 모델로

이론화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완성하고자 한다. 모델이란 복잡한 현실을 구조적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적 도구이다. 따라서 “전도 체질화 교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부광교회의 사례를 보편적 원리로 추상화하고, 이를 다양한 교회 상황에서 재해석·재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신학적 과제이다.

본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학문적 목적을 가진다. 첫째,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에 내재된 원리를 체계화하여 학문적 분석 도구로 제공한다. 둘째,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실천신학적 언어로 제시한다. 셋째, 이 모델이 다른 교회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음을 논증한다.

5.6.1. 모델의 명칭과 기본 구조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의 공식 명칭은 “전도 체질화 교회 모델(EDF Model: Evangelistic Dispositional Formation Model)”이다.

이 명칭은 다음과 같은 세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도(Evangelistic)”는 이 모델의 목적론적 지향 -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확장 - 을 가리킨다. “체질화(Dispositional)”는 전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향, 즉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으로 내면화됨을 가리킨다. “형성(Formation)”은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의도적인 형성 과정임을 강조한다.

EDF 모델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제 1 축: 4 대 구성 요소(Four Constitutive Dimensions)>

전도 체질화를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차원으로, 신학적 기반(T: Theological Foundation), 조직 구조(O: Organizational Structure), 공동체 문화(C: Community Culture), 실천 방식(P: Practical Implementation)이다. 이 네 차원은 TOCP 통합 구조를 이룬다.

<제 2 축: 3 단계 형성 과정>

전도 체질화가 형성되는 시간적 순서로, 각성·재정립 단계, 구조화·제도화 단계, 문화화·체질화 단계로 구성된다.

이 두 축이 교차하면서 EDF 모델은 “무엇이 전도 체질화를 구성하는가(TOCP)”와 “어떻게 전도 체질화가 형성되는가(3 단계 과정)”를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5.6.2. TOCP 통합 구조: 4대 구성 요소

<T - 신학적 기반(Theological Foundation)>

신학적 기반은 EDF 모델의 뿌리이자 모든 구성 요소를 지탱하는 토대이다. 전도가 교회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의해 내면화되어야 한다.

EDF 모델에서 신학적 기반은 세 가지 핵심 명제로 구성된다.

명제 1: 전도는 Missio Dei 에의 참여이다. 전도는 교회가 주도하는 성장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에 교회가 참여하는 신앙적 순종이다. 이 명제는 전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며, 결과보다 순종 자체의 가치를 강조한다.

명제 2: 전도는 교회의 존재론적 사명이다. 교회는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교 자체로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여러 기능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다.

명제 3: 전도의 본질은 복음 선포이며,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다. 전도자의 역할은 복음을 충실히 선포하는 것이며, 결실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 이 명제는 성과 중심의 전도 이해를 교정하고, 전도자에게 자유와 담대함을 부여한다.

이 세 명제가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 의해 신앙적 확신으로 내면화될 때, 전도는 외부에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정체성이 된다. 신학적 기반이 결여된 조직 구조는 곧 형식화되고, 신학적 확신이 없는 문화는 전도 피로로 귀결된다. 이 점에서 신학적 기반은 EDF 모델의 토대(foundation) 차원이다.

<0 -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 구조는 신학적 확신이 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구체화되는 차원이다. EDF 모델에서 조직 구조는 “전도의 탈분리화(de-compartmentalization)”를 핵심 원리로 한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전도는 흔히 전도부, 선교부와 같은 특정 부서의 기능으로 분리된다. 이 경우 전도는 해당 부서의 활동으로 제한되며, 교회 전체의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EDF 모델은 이 구조를 역전시킨다. 전도를 특정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존 조직(소그룹, 선교회, 봉사 팀 등)이 전도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EDF 모델에서 조직 구조 차원의 핵심 요소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 조직의 전도 기능 통합. 새로운 전도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기존 공동체 조직(소그룹, 속회, 선교회 등)이 자연스럽게 전도팀으로 기능하도록 재편한다. 이는 전도를 조직의 외부 기능이 아니라 내부 정체성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자기 운영 가능한 전도 시스템 구축. 목회자의 직접 개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평신도 중심 운영 체계(전도 본부)를 구축함으로써, 전도 사역이 특정 지도자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적 지속성을 확보한다.

셋째, 전도 조직의 단계적 확장. 전도대 조직을 소규모에서 시작하여 교회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부광교회: 21 개 → 125 개), 조직의 과부하 없이 지속 가능한 전도 구조를 유지한다.

이 조직 구조 차원은 신학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며, 공동체 문화와 실천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뼈대 역할을 한다.

<C - 공동체 문화(Community Culture)>

공동체 문화는 EDF 모델에서 가장 깊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 차원이다. 문화는 명시적인 규칙이나 조직도보다 더 강력하게 공동체 구성원의 행동과 가치를 형성한다. 전도 체질화의 완성은 전도가 공동체의 공유된 정체성, 언어, 내러티브로 내면화되는 문화적 전환에서 이루어진다.

EDF 모델에서 공동체 문화 차원은 다음의 네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된다.

첫째, 전도 내러티브의 지속적 재생산으로 설교, 간증, 새신자 환영 예배 등을 통해 전도 이야기가 공동체의 핵심 내러티브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 라는 공유된 정체성 언어가 형성된다.

둘째, 지도자의 가시적 모범(visible modeling)으로 목회 지도자가 전도 현장에 직접 앞장서는 것은 전도가 성도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화적 행위이다. 지도자의 모범은 어떤 선언보다 강력한 문화적 신호가 된다.

셋째, 공동체적 인정과 격려 구조이다. 전도 달란트 제도, 전도 경험 공유 모임 등은 전도를 공동체 내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적 장치이다. 이는 전도 참여의 내적 동기를 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전도 언어의 공동체화로 “태신자(전도 대상자)”, “5321”, “전도 체질” 등의 언어가 공동체 내에서 공유될 때, 그 언어 자체가 전도를 공동체의 정상적인 생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적 코드가 된다.

공동체 문화 차원은 EDF 모델의 혈맥이다. 조직 구조와 실천 방식이 뼈대와 근육이라면, 문화는 공동체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혈류이다.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구조와 실천은 지속되지 않는다.

<P - 실천 방식(Practical Implementation)>

실천 방식은 신학적 기반, 조직 구조, 공동체 문화가 구체적인 전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차원이다. EDF 모델에서 실천 방식의 핵심 원리는 “반복을 통한 습관화”이다. 한 번의 강렬한 경험보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이 전도를 “제 2의 천성”으로 만든다.

EDF 모델에서 실천 방식 차원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원칙 1: 일상화(Dailiness). 전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365일 전도 구조는 전도를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 만드는 제도적 메커니즘이다.

원칙 2: 다층화(Layering). 현장 전도(거점·거리·아파트 전도), 관계 전도, 행사 전도, 사회봉사 전도 등 다양한 실천 형태를 병렬로 운영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과 은사에 맞는 방식으로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일 형태의 전도 방식은 참여 가능한 성도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다층적 방식은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원칙 3: 단계화(Phasing). 전도 참여를 한꺼번에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고, 심리적 장벽이 낮은 실천(부활절 계단 전도, 굴 전도 등)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단계적 훈련 구조를 통해 전도 자신감과 동기를 형성한다.

실천 방식 차원은 EDF 모델의 근육(muscle)이다. 구조와 문화가 있어도 실제로 움직이는 실천이 없으면 전도 체질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5.6.3. EDF의 3단계 형성 과정

EDF 모델의 네 구성 요소(TOCP)는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심화된다. 이 3단계 과정은 부광교회의 발전 단계(부산 → 익산 → 인천)와 대응하며, 동시에 다른 교회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형성 과정의 모델을 제공한다.

<1 단계: 각성과 재정립 단계>

이 단계의 핵심 질문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는 무엇인가?”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도에 대한 신학적 재인식이다. 전도를 교회 성장 전략이나 선택적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기존 인식을 넘어, 전도를 교회의 존재론적 사명으로 재정립하는 신학적 각성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의 핵심 행위자는 목회 지도자이다. 지도자의 신학적 확신 형성과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 선포, 그리고 현장에서의 술선수범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이끈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정비보다 신학적 비전의 명확화와 지도자의 모범이 더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비전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다. 신학적 확신은 있으나 구조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 전도는 지도자 개인의 열정에 머문다. 따라서 1 단계는 반드시 2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1 단계 핵심 지표: 목회자의 전도 신학 명료화 / 공동체에 대한 전도 비전의 공식 선포 / 지도자의 전도 현장 참여 / 초기 핵심 그룹의 공유된 확신 형성

<2 단계: 구조화와 제도화 단계>

이 단계의 핵심 질문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다. 1 단계에서 형성된 신학적 확신이 교회의 조직 구조와 훈련 시스템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전도 조직의 정비, 평신도 전도대 구성, 전도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65일 전도 구조의 도입, 전도 본부의 설립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의 핵심 과제는 전도 사역을 목회자 개인의 열정에서 공동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조직의 전도 기능 통합.

둘째, 자기 운영 가능한 평신도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셋째, 전도 훈련의 제도화(전도학교, 영적군사학교 등).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구조화의 형식화이다. 조직과 시스템이 갖추어지더라도 그것이 신학적 확신과 공동체 문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전도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고착될 수 있다. 구조화는 반드시 문화 형성(3 단계)을 지향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2 단계 핵심 지표: 전도 조직의 체계화 / 평신도 전도 훈련 프로그램 운영 / 365 일 전도 구조의 정착 / 전도 본부(운영 지원 조직) 설립 / 전도 참여 성도 수의 지속적 증가

<3 단계: 문화화와 체질화 단계>

이 단계의 핵심 질문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루어지는가?” 이다. 3 단계에 도달한 교회에서는 전도가 더 이상 의무적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된다. 새로운 성도들도 공동체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 정체성을 형성하며, 전도는 자기 재생산적 메커니즘을 갖추게 된다.

이 단계의 핵심 특징은 전도의 자기 재생산성(self-reproducibility)이다. 특정 목회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체 자체가 전도 문화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이는 EDF 모델이 지향하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전도 체질화이다.

이 단계에서의 과제는 체질화의 심화와 건강성 유지이다. 전도가 문화가 되면 역설적으로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다. 전도 참여가 공동체 규범화되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소외감을 경험하거나, 전도 문화가 경직화될 수 있다. 따라서 3 단계에서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전도 문화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목회적 지혜가 요구된다.

3 단계 핵심 지표: 전도에 대한 지도자의 독려 없이도 자발적 참여 지속 /
 신규 성도의 전도 정체성 자연스러운 형성 / 전도를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내면화하는 성도 비율 증가 / 전도 사역의 세대 간 전수

5.6.4. EDF 모델의 핵심 명제: 전도-공동체-부흥의 선순환 구조

EDF 모델의 네 구성 요소(TOCP)가 3 단계 형성 과정을 거쳐 통합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전도 → 새 공동체 형성 → 교회 부흥 → 전도 확장

EDF 모델에서 이 선순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신학적·구조적 조건 위에서 작동한다.

조건 1: 전도가 Missio Dei 신학 위에서 있을 때, 전도는 성과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며, 성도들의 내적 동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조건 2: 조직 구조가 전도 중심으로 재편될 때, 전도는 특정 부서의 기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 작동하며, 구조적 지속성을 확보한다.

조건 3: 전도 문화가 공동체에 내면화될 때, 새로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전도 정체성을 형성하며, 선순환이 세대를 넘어 재생산된다.

조건 4: 실천 방식이 일상화·다층화·단계화될 때,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도에 참여하며, 참여의 폭과 깊이가 동시에 확보된다.

이 네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전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적 생명력이 된다.

5.6.5. EDF 모델의 적용 가능성: 다양한 교회 상황에서의 재해석

EDF 모델은 부광교회의 사례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모델이지만, 그 구성 원리는 다양한 교회 상황에서 재해석·재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EDF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교회 규모, 지역 특성, 교단 전통이라는 세 차원에서 검토한다.

<교회 규모에 따른 적용>

EDF 모델은 대형 교회만을 위한 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모델의 핵심 원리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며, 소형 교회에서 더 집중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소형 교회(100인 이하)에서는 조직 구조의 정교화보다 신학적 기반과 공동체 문화에 집중할 것을 권장한다. 소수의 성도가 함께 전도 비전을 공유하고, 간단한 관계 전도와 지역 밀착 전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전도 본부 같은 복잡한 운영 시스템보다는 목회자와 소수 핵심 성도의 전도 공동체 형성이 1-2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된다.

중형 교회(100-500인)에서는 기존 소그룹 조직을 전도 기능과 결합하는 조직 구조의 재편이 현실적 적용의 핵심이다. 이미 존재하는 목장, 속회, 구역 조직을 전도팀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부광교회 모델의 가장 직접적인 응용이다.

대형 교회(500인 이상)에서는 EDF 모델의 전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클수록 신학적 기반의 공동체 전체

공유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설교와 교육을 통한 전도 신학의 지속적 선포가 더욱 중요해진다.

<지역 특성에 따른 적용>

부광교회는 인천 부평이라는 도시 지역에 위치하며, 아파트 밀집 주거 구조라는 지역적 특성이 아파트 전도, 거점 전도 등의 실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EDF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는 실천 방식 차원에서 지역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농촌·소도시 지역에서는 밀집된 공동체적 관계망이 오히려 관계 전도의 토양이 될 수 있다. 거점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와 지역 사회 봉사 전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신뢰 형성이 전도 체질화의 핵심 전도 통로가 된다.

도심·대도시 지역에서는 익명성이 강하고 관계 형성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히려 이 환경은 전도 대상자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거점 전도, 지하철·쇼핑몰 전도 등 현장 전도와 함께, SNS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 전도를 EDF 모델의 실천 방식 차원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교단 전통에 따른 적용>

부광교회는 감리교 전통에 속하며, 감리교의 속회(목장) 조직이 전도대 구조의 핵심 자원이 되었다. 다른 교단에 EDF 모델을 적용할 때는 각 교단의 전통적 소그룹 구조와 조직 문화를 EDF 모델의 조직 구조 차원에 창의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조직 형태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단이 가진 조직 자원을 전도 기능과 통합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학적 기반 차원에서는 각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 전도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DF 모델이 제시하는 Missio Dei 신학과 선교적 교회론은 교단을 초월하는 에큐메니칼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다양한 교단 전통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5.7. 전도 중심 교회 모델에 대한 비판적 성찰

본 연구는 김상현 목사의 목회 사역과 부광교회의 사례를 현대 교회의 침체와 복음 전도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부광교회의 전도 중심 사역과 사례는 전도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구조와 문화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 특정 사역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보편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규범적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목회 모델은 기술적 설명을 넘어 해석적·규범적 비판을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전도 중심 교회 모델이 가지는 신학적 긴장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함께 이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응답을 함께 모색한다.

5.7.1. 전도 중심성 강조에 따른 신학적 긴장

전도 중심 교회 모델의 핵심 주장은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도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한국 교회의 전도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강력한 규범적 힘을 가진다. 그러나 이 주장은 동시에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로 환원될 수 있는가? 전도를 교회의 유일한 또는 최우선적 사명으로 설정할 때, 교회의 다른 본질적 차원들은 어떻게 자리 매겨지는가?

고전적인 교회론은 교회를 단일한 기능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예배, 교육과 양육, 공동체, 섬김,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차원들로서 상호 의존적이고 동등한 비중을 가진다. Emil Brunner 가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The Church exists by mission as fire exists by burning)” 고 말했다 때,⁷⁴ 이는 교회의 유일한 본질이 전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도가 교회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의미였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며, 섬김을 통해 흘러나오고, 전도를 통해 세상으로 확장된다.

전도를 교회의 중심 사명으로 절대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학적 긴장이 발생한다.

첫째, 예배 중심성과의 긴장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사역의 근원이다. 그러나 전도를 교회의 “본질”로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예배가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한다.

⁷⁴ Emil Brunner,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SCM Press, 1931), 108.

John Stott 는 전도와 예배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전도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⁷⁵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도 중심 교회 모델은 예배의 신학적 중심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도 체질화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배 → 전도”의 흐름이 유지되어야 하며, “전도를 위한 예배”로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성례전 이해와의 긴장이다.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이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러나 전도 중심 구조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교회의 관심이 외적 확장에 집중되면서 성례전의 신학적 깊이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David J. Bosch 는 선교와 교회의 균형을 논하면서,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동시에 “모이는 공동체”임을 강조한다.⁷⁶ 이는 곧 전도와 성례, 파송과 모임 사이의 긴장적 균형을 요구한다.

셋째, 공동체성 약화의 가능성이다. 전도 중심 교회는 외부 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반면, 내부 공동체의 돌봄과 성숙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전도의 성과가 강조될 경우, 교인들은 ‘전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며, 이는 공동체 내 보이지 않는 긴장과 부담을 형성할 수 있다. N. T. Wright 는 교회를 단순한 확장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⁷⁵ 존 스토틀, 『살아있는 교회』 김명희 역 (서울: IVP, 2008), 97.

⁷⁶ Bosch, *Transforming Mission*, 393.

공동체로 이해한다.⁷⁷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도는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책임과의 균형 문제이다. 전도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강조할 때, 자칫 사회적 책임(정의, 구제, 공공성)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경적 전도는 단순한 영혼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정의, 사랑, 회복)를 포함하는 총체적 사명이다. Lesslie Newbigin은 교회를 “복음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며, 복음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다고 강조한다.⁷⁸ 따라서 전도 체질화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5.7.2. 전도 체질화 구조의 조직적 한계

부광교회의 전도 체질화는 김상현 목사의 강력한 신학적 확신과 리더십 아래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긍정적으로는 강력한 방향성과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특정 리더십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가진다.

- 리더 교체 시 시스템 약화 가능성
- 핵심 가치의 변질 또는 축소
- 자율적 재생산 구조의 한계

⁷⁷ N. T. Wright, *Surprised by Hope: Rethinking Heaven,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New York: HarperOne, 2008), 217.

⁷⁸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222-233.

따라서 전도 체질화는 개인 중심이 아니라, “리더십 → 시스템 → 공동체”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져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도 체질화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전도는 자발적 신앙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의무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전도의 형식화
- 내적 동기의 약화
- 영적 피로감 증가

따라서 건강한 전도 체질화는 시스템이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앙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5.7.3. 전도 모델의 일반화 한계

부광교회의 전도 모델은 특정한 지역, 문화, 시대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 도시형 교회 vs 농촌 교회
- 대형 교회 vs 소형 교회
- 한국 교회 vs 글로벌 교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도 체질화는 오히려 부담과 실패 경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전도 체질화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와 구조의 통합적 결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현되기 어렵다. 특히 다음 요소들은 복제하기 어렵다.

- 리더십의 카리스마
-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
- 공동체의 신뢰 구조

따라서 전도 체질화는 “모델 적용”이 아니라 “원리 적용 + 맥락화”의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부광교회의 전도 중심 교회 모델은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전도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모든 차원을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단일 원리로 작동할 때, 다양한 신학적 긴장과 구조적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전도 체질화는 다음과 같은 균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전도와 예배의 균형
- 전도와 성례의 균형
- 전도와 공동체성의 균형
-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결국 전도 체질화는 교회의 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 생태계를 건강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6장 결 론

6.1. 연구 결과 요약

6.1.1. 전도와 교회 부흥 및 공동체 형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김상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인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을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Richard Osmer의 네 가지 과제(기술적, 해석적, 규범적, 실천적)를 분석 틀로 삼아,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 위기 상황 속에서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와 목회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전도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와 교육,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점차 확대되고 형성된다. 다시 말해 전도는 단순한 외적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전도는 교회의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깊이 연결된 본질적 사명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통해 교회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다. 또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 선포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경적 흐름은 전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적 사명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김상현 목사의 목회 철학은 이러한 성경적 전도 이해를 실제 목회 현장 속에서 구체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전도를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전도를 특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나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존 교회의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전도를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통합한 ‘전도 체질 교회’ 모델로 이해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전도를 일시적인 활동이나 선택적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중요한 신학적 전환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전도가 교회의 외적 성장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신학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David J. Bosch의 선교 신학과 연결되며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Lesslie Newbigin과 Darrell L. Guder가 제시한 선교적 교회론과도 깊이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도가 복음 선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John Stott의 전도 이해와도 일관된 흐름을 가진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이러한 전도 철학이 실제 목회 구조 속에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광교회는 전도를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설정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전도 중심 구조로 재편하였다. 특히 평신도 전도대 조직과

365일 전도 사역, 그리고 전도 본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전도 구조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전도가 특정한 소수의 열정적인 성도들에게 의존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하는 사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전도 사역은 결국 복음을 통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복음을 통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제자 양육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동체 형성 과정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 사례를 통해 교회의 부흥이 단순한 성장 전략이나 조직적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전도(Evangelism) → 공동체 형성(Community) → 교회 성장(Revival) → 전도 확장(Reproduction)

이 모델은 전도가 교회의 중심 사명으로 작동할 때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가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전도 사역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부광교회의 사례는 이러한 구조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천적 모델이다.

교회의 성장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조직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로 들어오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공동체로 초청하였고, 이들은 예배와 교육,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신앙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교인 수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성장과 사명 의식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목회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복음 전도 → 새신자 유입 → 신앙 공동체 형성 → 제자 양육과 공동체 정착
→ 지속적 신앙 성장 → 교회 부흥

이러한 구조는 교회의 부흥이 단순한 조직적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전도는 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이며, 공동체 형성은 교회 성장과 부흥의 기반이 된다. 또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평신도 중심 전도 구조를 통해 전도 사역의 지속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도 사역이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도의 확장성과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광교회는 평신도 전도대 조직과 지속적인 전도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신도 중심 전도 구조는 교회의 전도 사역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일회성 전도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전도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365일 전도 사역과 지속적인 전도 훈련, 그리고 전도 본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운영은 전도가 특정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전도 체질화 전략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결국 부광교회의 사례는 교회의 부흥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전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보여준다. 교회가 전도를 교회의 중심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실천할 때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건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 형성된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열매라고 할 수 있다.

6.1.2. 부광교회 전도 사역의 의의와 평가 및 김상현 목사의 전도 정의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으로 재정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전도를 특정 부서나 일부 성도의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 확장시켰다.

둘째, 전도 사역을 교회의 구조와 문화 속에 통합함으로써 전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365일 전도 구조와 전도대 조직, 평신도 참여 구조는 전도 사역이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전도 사역을 공동체적 참여 구조로 확장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전도 공동체로 형성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전도 사역을 특정 개인의 열정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구 결과 김상현 목사의 전도 이해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 지향적 전도 개념(field-oriented evangelism)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전도 개념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현장 전도(Field Evangelism)**이다. 이는 전도를 교회 내부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선포 사역으로 이해하는 전도 개념이다.

둘째, **전도 체질화(Evangelistic DNA)**이다. 이는 전도를 특정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와 구조 속에 정착시키는 목회적 접근을 의미한다.

셋째, **평신도 전도 구조(Lay Evangelism System)**이다. 이는 전도 사역을 목회자 중심 활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역으로 이해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부광교회의 사례는 이러한 전도 개념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광교회는 평신도 전도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도 사역을 실시하였으며, 365일 전도 구조와 체계적인 전도 훈련을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도 구조는 전도가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6.2. 실천신학적 의의 및 한국 교회를 위한 적용과 제언

본 연구는 전도 중심 목회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 교회의 전도 사역을 이해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는 특정 기간에 진행되는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는 전도가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과 깊이 연결된 사명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전도 사역이 교회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속에 정착될 때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상현 목사의 전도 목회는 전도를 교회의 중심 사명으로 설정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전도 중심 구조로 재편함으로써 전도 사역이 교회 공동체의 일상적인 사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평신도 중심 전도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도 사역이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도의 확장성과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신도 전도 구조가 형성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도 사역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할 때,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통해 전도가 교회의 중심 사명으로 작동할 때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가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전도-공동체-부흥’의 선순환 모델로 개념화한다.

전도(Evangelism) → 공동체 형성(Community) → 교회 부흥(Revival) → 전도 확장(Reproduction)

이 모델은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으로 작동할 때 공동체의 참여와 헌신을 촉진하고, 이러한 공동체적 변화가 다시 전도 사역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천신학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전도학 연구가 전도를 주로 방법론적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해해 온 것과 달리, 전도를 교회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본질적 동력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선순환 구조의 모델로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이 모델은 전도를 교회의 외적 성장 전략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 정체성과 연결된 실천적 구조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도학 논의를 확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상현 목사의 전도 목회는 현대 교회가 전도 사역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실천신학적 모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 위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목회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전도 중심 목회의 원리는 한국 교회가 전도 사명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 교회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는 특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나 캠페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도 사역을 지속적인 교회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를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연결된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교회 구조의 전도 중심 재편이 필요하다. 교회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역 구조가 전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 전도 사역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부광교회의 사례는 전도 사역이 교회의 핵심 구조 속에서 운영될 때 지속적인 전도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전도 사역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목회 구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신도 중심 전도 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다. 전도 사역이 목회자 중심 사역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도의 확장성과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평신도 전도대 조직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전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평신도 중심 전도 구조는 교회의 전도 사역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일상 중심 전도 문화의 회복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도가 특정한 종교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전도가 교회 내부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한국 교회가 전도 사역을 단순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교회의 정체성과 구조 속에서 재해석해야 함을 보여준다. 교회가 전도를 교회의 중심 사명으로 회복할 때, 전도 - 공동체 - 부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며,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지속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6.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는 김상현 목사의 전도 목회와 인천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을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이 교회 공동체 형성과 교회 부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전도 위기 상황 속에서 전도

사역을 회복하기 위한 목회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단일 사례 연구(single case study)라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특정 교회의 사례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 교회의 전도 사역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연구 결과를 모든 교회 상황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김상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리더십, 교회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지역 사회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도 중심 목회 모델을 한국 교회의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회의 전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을 보다 폭넓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의 규모, 지역 환경, 교단 구조, 그리고 목회 리더십의 차이에 따라 전도 사역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전도 목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도 체질화 구조는 높은 참여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도들의 피로도 증가와 사역 부담이라는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전도가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강조되고 모든 성도에게 반복적으로 요구될 경우, 전도 참여가 자발적인 신앙 실천이라기보다 일정한 의무나 부담으로 인식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부광교회와 같이 전도 사역이 일상적 구조로 정착된 환경에서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전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신앙 상태와 삶의 여건에 따라 정서적 피로와 영적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도 사역의 본질이 자발성과 기쁨에 기반해야 한다는 신학적 원리와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아니라 반복적 과업으로 인식될 경우, 전도에 대한 내적 동기는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도 사역의 지속성과 공동체의 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도 체질화 구조는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 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일부 성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영적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경우 공동체 내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교회 공동체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 구조와 개인 중심적 삶의 패턴 속에서 전도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요구는 현실적 한계와 충돌할 수 있다. 직장과 가정, 개인의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반복적 전도 활동은 시간적·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도 참여를 점차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도 체질화 구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전도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의 신앙 성숙도와 삶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전도 사역이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 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참여 방식과 단계적 훈련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여정에 맞게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은 전도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교단, 교회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은 특정한 교단적 배경과 교회의 규모, 지역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목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히 교회의 내부 구조나 목회 철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신학적 전통과 교회 조직 구조, 그리고 교회 규모와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종교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전도 환경과 사회적 관계 구조가 서로 다르며, 교회의 규모나 교단적 특성에 따라 전도 사역의 방식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부광교회의 전도 모델을 다른 교단이나 지역의 교회에 적용할 때에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목회적 재해석과 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단과 지역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 사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도 중심 교회의 목회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도 중심 교회 모델의 보편성과 적용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광교회의 전도 사역을 통해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교회의 부흥과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도 교회의 전도 사역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한국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외국도서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L: IVP, 2006.

Brunner, Emil.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SCM Press, 1931.

Fee, Gordon D. *Pauline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Guder, Darrell L.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Malphurs, Aubrey. *Strategic Planning for Ministr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Schnabel, Eckhard J. *Early Christian Mission, 2 vols*. Downers Grove, IL: IVP,

2004.

Stott, John.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L: IVP,

1975.

Wright, N. T. *Surprised by Hope: Rethinking Heaven,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New York: HarperOne, 2008.

번역도서

스토트, 존. 『살아있는 교회』. 김명희 역. 서울: IVP, 2008.

국내도서

교회성장연구소. 『365 전도체질 부광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9.

김상현. 『나는 전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서울: 두란노, 2005.

----- . 『Power 전도 중심교회』. 서울: 프리셉트, 2006.

----- . 『복음만 자랑하라』. 서울: 두란노, 2010.

----- . 『전도 중심 교회로 바꾸라』. 서울: 두란노, 2013.

김세윤. 『바울복음과 선교』. 서울: 두란노, 2001.

부록

A. 전도 훈련 자료

1) 전도제자학교 기획안

전도제자학교[4주과정]

- 1.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 2월 6일(목) 매주 목요일
- 2. 장 소 : 부광교회 본당 3층 새가족실(1주차) 및 4층 세미나실(2-4주차)
- 3. 참석 인원 : 12명
- 4. 회 비 : 20,000원
- 5. 교육 과정

	1주차(1/9)	2주차(1/16)	3주차(1/23)	4주차(2/6)	담당자
10:00~10:10	찬양과 기도				종무/ 교육팀장
10:10~11:00	O.T	목상나눔			오요한목사
	예수님 따라 전도하기	전도형 인간	예수님 따라 관계전도하기	현장 전도의 실재	
11:00~11:10	휴식(다과)				
11:10~12:00	실습(1) 어머니전도법 (3-1 어머니칭) 행복메시지 (4-1복음메시지)	실습(2) 어머니전도법 +행복메시지 (3-2 전체) 나의행복 복음 메시지 만들기 (4-2)	실습(3) 너무좋아 메시지 너무좋아 메시지만들기 (5-1)	실습(4) 나의 간증 실습+종정리 (5-2) 나의 행복 복음 완성하기(6)	오요한목사
12:00~1:00	현장(1) 영적지도그리기 땅밟기전도	현장(2) 거리전도 (부평공원)	현장(3) 거리전도 (메시지선포)		전도본부 사역자
1:00~2:00					점심식사
과제	창 1:27 롬 3:23 어미칭연습	요 3:16 요 1:12 행복메시지연습	마 11:28 요 14:6 나의간증만들기(5-2)		

6. 준비사항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매주
준비물	영적지도, 스티커 (검,빨,파)	전도목걸이 전도지	스피커, 거리전도메시지 전도목걸이 전도지		

2) 전도제자학교 강의 자료



1과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할 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눅10:17-20)

I.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

1. 분명한 내용의 복음과 확실하게 정리된 메시지 있는가?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불신자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불신자(낙심자)에게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전도자로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능력 있는 전도자는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복음입니다.
- 2)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여야 합니다.
- 3)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2.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네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당신은 예수님 한분만으로 충분하니까?)

2)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3) 사람들은 왜 교회가 필요하니까?

(1)사람들은 왜 교회가 필요하니까? 해답7가지

①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조물입니다.(고전12:10-27)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을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②세상 속에서 지속되는 예수의 성육신으로서의 교회(엡 1:23)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의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수를 위하여 말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예수의 손과 목소리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의 매개자인 것입니다.



③교회는 성령의 성전입니다.(마태18:18-20)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바울과 예수께서는 신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현존하신다고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이들 위에 내려오신 때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④성서는 우리에게 함께 만나 서로를 격려하라고 명령하십니다.(히10:24-25)

성서는 특별히 신자들에게 함께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⑤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서로 함께할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엡 4:12)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일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진정한 잠재력을 절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사역을 개발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때와, 한 그룹의 구성원 전체가 조합된 자원들을 사용하고 사역을 위해 공동의 은사를 서로 나누며 일할 때의 영향력과 힘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교회는 개개인의 선한 의도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⑥각각의 신자는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롬12:3-13)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사 혹은 능력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은사들은 자기 계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돕는 데 유용하게 쓰이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타인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⑦철저하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배, 교제, 제자의 삶,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장의 방편들은 교회라는 상황안에 있을 때에 최대한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2)사람들에게 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사람들은 왜 바로 우리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II. 땅밟기 전도(영적지도 그리기)

1. 땅밟기 전도: 도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 전도하기 전에 지역의 영적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이지 않는 문화적 특성과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영적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땅(지역)을 밟으며 중보기도합니다. 땅밟기 전도는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땅밟기 전도'라고 합니다.

2. 하나님의 지역(도시)에 향한 마음

하나님은 땅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인간의 죄로 인해 땅과 모두 멸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멸망할 인간과 땅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십니다. 사람이려면 누구나 땅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것임을 알아야 합니다.(창세기1:28) 땅을 특별히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시106:38), 음란(겔18:3,22), 탐심(수7:21) 등으로 더러운 죄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면 그 땅은 버릴받게 됩니다. 죄는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 못하게 하며 사탄이 침투하여 땅을 파괴하고 더럽게 만드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땅(지역) 밟기 실제 전도에 들어가기

1)영적 지도 그리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영적 지도란 영적 세계의 세력과 사건들에 대해 이해한 바를 물리적 세계의 장소와 환경들 위에도 표기해 놓는 것입니다.(조지 오티스) 영적 전투에 있어 지역을 조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란 말대로 전쟁에 임할 때 적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조사를 통해 얻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정탐꾼을 파송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성실히 배웠던 여호수아도 두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땅을 조사하는 것은 기도의 기록제 역할을 합니다. 영적 지도를 만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분명한 전략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평지역에 문화의 거리와 롯데백화점 주위는 술집과 결과 점집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땅 밟기 기도를 이해하고 교회 주변의 땅을 밟으며 중보기도를 했더니 점집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주변 역시 부평교회주변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2)역사적 개관

- (1)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 (2)우리의 도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축제나 지역행사를 개최합니까?
- (3)우리의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어떤 문명이 살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관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4)우리 도시에 기독교 이단은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 (5)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높은 산이나 영적 힘이 모이는 지점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영적 활동이 행해졌습니까?



(6)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3)사회동향

(1)도시의 평균 연령층은 어떠한가? 그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소화되고 있습니까?
교인들의 평균 연령층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2)지난 3년동안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했습니까?

(3)평균 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4)현재 도시의 범죄율은 어떠한가? 지난 3년간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있습니까?

4)영적지도 만들기

(1)도시의 지도를 구하십시오.(대형지도)

(2)지도 위에 도시의 모든 교회의 위치를 표시하십시오. 교회가 집중 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살펴보십시오.

(3)지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곳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십시오.

(4)관공서를 표시하십시오.

(5)도시에 악한 영향과 근거가 되는 장소들을 확인하십시오.(점집, 술집, 음란 사업장소, 퇴폐 안마시술소 등)

(6)사단이 활약하고 있는 거점을 찾아보십시오.(점집, 이단단체, 물몬교 등)

4.중보기도하기

교회는 복음전도에 선봉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전도는 적극적인 영적 전투입니다. 사랑실천의 나눔과 섬김은 궁핍의 세력을 피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또한 섬김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적극적인 영적 전투로 복음전도의 선봉에 사명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실천의 선봉에 서야합니다. 그리고 열방과 나라와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1)영적지도를 가지고 지역에 나가기

영적지도를 그린 후 지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전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2)지역에서 찬양과 경배하기

찬양과 경배는 땅 전도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사바왕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과 전쟁할 때도 찬양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했습니다.

3)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

영적 전쟁에서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특히 지역을 향해 영적 전투를 할 때 선포의 능력을 믿고 외쳐야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단아, 너는 이 곳에서 아무 힘이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 그 지역을 장악하던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시와 나라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마귀의 세력을 묶으며 땅 전도를 통해 기도와 전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지역과 도시를 위한 회개기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느 지역이 과거의 죄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었다면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느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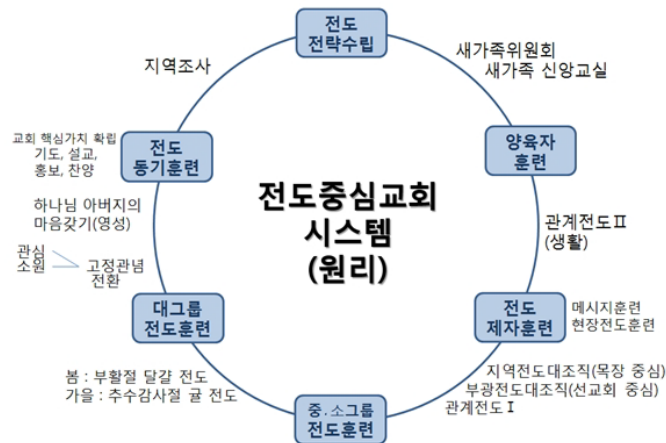
2과 예수님 따라 관계 전도하기

I. 예수님 따라 전도하기

1. 예수님 따라 전도하는 전도 시스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전도 방법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지체인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따라 전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 전도하기, 즉 전도중심교회의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전도중심교회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전도의 생활화, 즉 체질화를 만듭니다. 교인들이 전도가 체질화되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관계전도가 이루어집니다.



2. 예수님 따라 전도하기

전도의 비결은 모범적으로 전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사람들(사마리아 여인, 제자들, 사마리아 주민, 왕의 신하)을 만나서 이룬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도의 원리를 찾아보십시오.

1) “찾아가야 합니다”

- (1)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 (2) 예수님은 당시의 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기다려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 욕을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3) 누구에게든지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멸하는 사람에게도 가야합니다.(9절)
- (4) 왜 주님은 찾아가셨을까요? 주님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은 있어도 발을 옮길 수 없는 이들이 있기에 찾아가셨습니다.



2) "전도를 생활화하여서 체질화해야 합니다"

(1) 모든 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 6절

피곤하여 지쳤을 때도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타면 가능합니다)

(2) 혼자 있는 순간에도 전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없을 때에도 전도하였습니다. - 8절

3)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 7절

(1) 접촉점을 찾으십시오. 대화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화의 법을 배우십시오.

(2) 지혜롭게 접근하십시오.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이단들도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ex>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많은 덕을 쌓으셨군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하십시오. (ex> C.C.C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락방은 "인생에는 모든 짐이 있습니다.")

4) "삶의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 10절

(1) 상대방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문제)

여인은 참된 해갈을 얻지 못한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18절)

(예뻐으나 참된 행복을 갖지 못한 여인 : 남편이 다섯이였음 : 참된 사랑을 모르는 여인)

(2)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고아, 영적 환자)

(3)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 ?

(1)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문제 해결, 저주 추방, 질병 치유, 죄 용서)을 받아야 합니다.

(2) 삶의 진정한 필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을 만나면 거짓된 사랑은 끝나게 마련입니다.

(3) 물이 아니라 심령을 위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마셔야 합니다.

6) "바른 고백이 나오게 하여야합니다" - 19절, 25~26절

(1) 여인의 일차적인 고백은 "선지자"였습니다. (19절) 새로운 발견이지만 참된 발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2) 예수님은 구세주하는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25~2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7)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 23~24절

(1)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2)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4) 하나님의 권을 찾아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8) “전도형 인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9~3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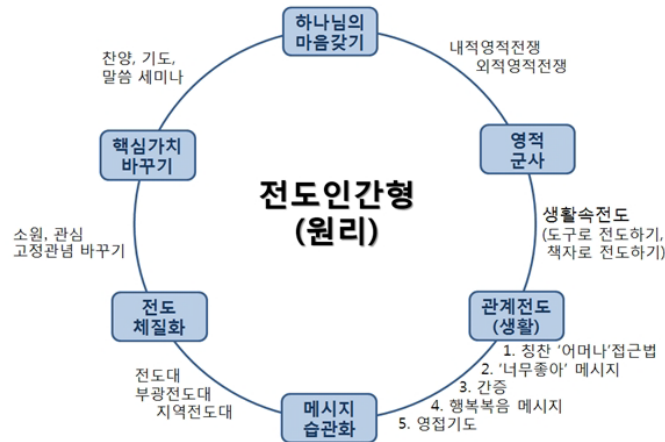
- (1) 피전도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숨어있던 여인이 증거자가 되었습니다.(29절)
전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 (2) 복음 증거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은 계속 붙어야 합니다.
- (3)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제자 삼는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 (4) 죄 지은 여인을 통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30절)

II.전도형 인간

1.전도형 인간의 원리

전도형인간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가 생활화, 즉 체질이 되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체질이 되면 먼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1차 현장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전도가 신바람이 나와 합니다. 둘째로, 2차 전도현장에서 말과 행동이 체질화되어 거점이나 거리에서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어야합니다. 셋째로, 3차 전도현장인 삶의 현장에서 관계전도로 연결 되어야 합니다.

전도형인간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2.전도형인간의 체질화

1)눈 : 길 잃은 양이 보이고 추수할 곡식이 보여야 합니다.

마 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요 4:3 너희가 녀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2)귀 :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 주임이 명하시는 소리, 우리를 부르는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

삼상 3:10 여호와께서 입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행 1:8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3)입 : 담대하게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들읍니다.

행 4:18~19 그들을 부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롬 10:14 그런즉 그들이 알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4)코 : 썩어가는 심령의 냄새를 맡으십시오.

고후 2: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5)가슴 : 뜨거운 가슴을 가지십시오.

렘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6)손 : 사람을 낚는 손(잡으면 놓치니 말라), 후원하는 손

마 4:18~19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빌 2: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고후 8: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충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7)발 : 넓은 땅을 다니며 밟아야 합니다.

롬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창 13:14~17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수 1:3~4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III. 예수님따라 관계전도하기

전도자로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을 사람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4:19)고 말씀 하셨습니다.

B. 전도 매뉴얼 원본

1) 전도축제 기안(2025년 봄 전도축제)



예수사랑, 멈출 수 없는 복음전도!

[변함없이] 사랑하라 [거침없이] 전도하라
Unchanging love Unstoppable evangelism

2025 629 봄전도축제 기획안

[일시: 4/20(주일)~6/29(주일)] 생명을 전하는 봄, 복음을 전하는 성도

1. 슬로건 및 일정

- 1) 슬로건 : [변함없이] **사랑하라** [거침없이] **전도하라** *Unchanging love Unstoppable evangelism*
- 2) 일 정 : 2025. 4/20(주일)~6/29(주일) / 10주간
- 3) 출범식 : 4/20(주일) 저녁 7:30~8:30 / 본당
- 4) 목 표 :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자!**

6.29 전도축제: 옥제를(영혼). 이번엔 반드시. 구하자!	
6 옥제들!	사람의 옥제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메시지
2 이번엔!	이번 봄전도축제에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단
9 구하자!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복음전도를 실천하자는 의지

2. 전도축제 진행사항

- 1) 한 영혼 더! 태신자 작정주일: 3/30(주일) 2) 교구별 총력기도회/땅밟기 전도: 4/16(수)
- 3) 부활탄나눔전도: 4/20(주일) 오전예배 후 4) 봄전도축제 출범식: 4/20(주일) 저녁예배 시

주제		내용	특별초청주일	
1	제목	629 봄전도축제 출범식 & 부활절 칸타타		
2	일정	4/20(주일) 저녁예배 시		
3	주제	전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일시	초청주일
4	진행방법	1. 629 봄전도축제 출범식	5/11	가족(자녀, 친척) 초청주일
		1) 찬양과 대표기도	5/18	직장동료 초청주일
		2) 출범식	5/25	남편 초청주일
		① 전도축제 표어 및 목표 선언	6/8	친구&이웃 초청주일
		② 교구별 기 입장: 교구별기수입장(장로/대표)	6/22~29	VIP 태신자 초청주일
		③ 전도축제 출범 및 비전선포: "부광교회는 2025년, 629 전도축제를 통해 영혼구원 사명을 감당합니다!, 2025 629 봄전도축제 출범을 선언합니다!"		
④ 교구소개 및 구호선포: 교구장 - 교구별 구호: 각 교구는 전도축제의 목적과 비전을 간략하게 나누고, 선포 - 전도 선포: 전도자들이 하나님께 전도할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 각 교구 대표는 전도의 비전을 선포하며, 함께 전도의 다짐을 나눔				
⑤ 전도축제 사명자 선포: 교구장로				
⑥ 전도축제 비전 영상				
		2) 부활절 칸타타 3) 광고 및 결단찬양 4) 축도		

6) 봄전도축제 장소

교구	깃발색	전도장소	릴레이 기도	기도장소
1교구	에메랄드색	부평1동주민센터	1차 5/12 월 00:00 - 월 16:00 2차 6/09 월 00:00 - 월 16:00	본당3층 353호(화:1교 204호)
2교구	보라색	부평시장	1차 5/13 화 10:00 - 수 02:00 2차 6/10 화 10:00 - 수 02:00	본당3층 354호(화:1교 208호)
3교구	파란색	하이마트	1차 5/16 금 05:00 - 금 23:00 2차 6/13 금 05:00 - 금 23:00	성가대가운실
4교구	흰색	부평역	1차 5/15 목 12:00 - 금 04:00 2차 6/12 목 12:00 - 금 04:00	1교육관 201호
5교구	초록색	문화의 거리	1차 5/14 수 19:00 - 목 11:00 2차 6/11 수 19:00 - 목 11:00	1교육관 207호(화:1교 203호)
6교구	노란색	지하상가	1차 5/12 월 17:00 - 화 09:00 2차 6/10 월 17:00 - 화 09:00	1교육관 209호
7교구	빨간색	하나은행	1차 5/14 수 03:00 - 수 18:00 2차 6/11 수 03:00 - 수 18:00	본당4층 454호



예수사랑, 멈출 수 없는 복음전도!

[변함없이] 사랑하라 [거침없이] 전도하라

Unchanging love Unstoppable evangelism

[629 봄전도축제 일정 - 4월 20일 ~ 6월 29일]

일 / Sun	월 / Mon	화 / Tue	수 / Wed	목 / Thu	금 / Fri	토 / Sat
3/16 · 잃은양찾기주일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부활란전도기안	3/26 · 봄전도홍보물 · 디자인 확정	3/27	3/28 · 태신자작정준비 · 오프라인/온라인	3/29
3/30 · 태신자작정영상1 · 태신자작정주일	3/31	4/1 · 태신자작정 1차 점검 · 전도축제홍보물 · 교회게시판 · 홈페이지/DP	4/2	4/3	4/4	4/5 · 전도축제현수막 · 메인현수막 게시
4/6	4/7 · 부광해피뉴스 발행	4/8	4/9	4/10 전실 게시물 설치(전도본부)	4/11	4/12
4/13 중려주일	4/14	4/15	4/16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전도축제출범을 위한 교구기도회(10시) 당발기(12시)	4/17	4/18 성금요일	4/19 교구별 부활란 포장
4/20 · 부활주일 · 부활란나눔전도 · 부활란나눔전도 홍보영상 봄전도축제출범식 전도축제(4/20-6/29)	4/21	4/22 · 태신자작정 2차 점검	4/23 총력클린전도 (1-4교구 목사준목자)	4/24	4/25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4/26 · 교역자전도
4/27 · 전도축제홍보영상1	4/28	4/29	4/30 총력클린전도 (5-7교구 목사준목자)	5/1	5/2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5/3 · 교역자전도
5/4	5/5	5/6 대체공휴일	5/7 · 교구별 태신자작정 및 접촉상황 점검 수요클린전도(1교구)	5/8	5/9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5/10 · 교역자전도
5/11 · 릴레이기도방준비	5/12	5/13	5/14 수요클린전도(2교구)	5/15	5/16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5/17 · 교역자전도
1차 24시간 릴레이기도						
5/18 · 전도축제홍보영상1	5/19	5/20 · 교구별 태신자작정 및 접촉상황 점검	5/21 · 태신자선물지급 수요클린전도(3교구)	5/22	5/23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5/24 · 교역자전도
5/25	5/26	5/27	5/28 수요클린전도(4교구)	5/29	5/30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5/31 · 교역자전도
6/1	6/2	6/3	6/4 수요클린전도(5교구)	6/5	6/6 현충일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6/7 · 교역자전도
6/8 · 전도축제홍보영상1 · 릴레이기도방준비	6/9	6/10	6/11 수요클린전도(6교구)	6/12	6/13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6/14 · 교역자전도
2차 24시간 릴레이기도						
6/15	6/16	6/17 · 표어 전실 현수막 의뢰(원플러스데이 /여름음)	6/18 수요클린전도(7교구)	6/19	6/20 지역부광 전도대장기도회	6/21 · 교역자전도
6/22	6/23	6/24	6/25 원플러스데이를 위한 기도회(10시)	6/26	6/27 원플러스데이를 위한 지역부광 전도대장총력기도회	6/28 · 교역자전도
6/29 원플러스데이 · 원플러스데이 영상	6/30	7/1 · 전도축제 결산	7/2	7/3	7/4	7/5
7/6 상반기전도시상식 백주감사주일	7/7	7/8	7/9	7/10	7/11	7/12

2) 2025년 부활란 전도 기안

2025 부활란 전도 기안

최종수정일 : 2025년 3월 21일(금)

I. 부활란 나눔 전도

1. 부활란 나눔전도 일시 : 2025년 4월 20일(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
2. 부활란 개란 판수 : 각 교구 여자목장수 x 2판
3. 전도지역 : 각 교구 목사가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4. 전도방법 : 목자, 준목자(교회주변 아파트 및 빌라), 개인전도(전교인)
5. 포장방법
 - 1) 목자, 준목자용
 - (1) 목자, 준목자용은 교구별 세부계획서에 의해 포장합니다.
 - (2) 포장된 목자, 준목자용 대봉투는 교회정문 천막에 팀별(교구)로 배치합니다.
 - 2) 개인전도용
 - 1) 남은 부활란(개인전도용)은 소봉투 2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 포장합니다.
 - 2) 소봉투 40개(묶음으로 20개)를 대봉투에 넣습니다. 40개를 모두 넣은 대봉투에는 교구명이 기록된 라벨지를 넣고 정해진 자리(본당 전실)에 배치합니다.
6. 부활란 배포
 - 1) 목자, 준목자는 정해진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전도 시 부광교회 교패 세대는 제외)
 - 2) 개인전도 : 각 예배 후 장로, 각교구 교구장 배분 - 전실 밖에서 배부합니다.
배분 시 멘트 : “전도 합시다 / 복음을 전합시다 /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
 - (1) 전교인이 전도할 수 있도록 교구별 독려합니다.
 - (2) 한 명당 개인전도용 1묶음(소봉투 2개)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부합니다.
 7. 각 교구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9일(수)까지 웹하드에 올립니다.
 8. 전교인 전도용 부활란이 남은 시에는 교구별로 분배하여 전도합니다.

II. 교구별 부활란 배정

1. 부활란 적재 : 4월 18일(금) 오후 5시 전에 지정된 장소에 적재합니다.
2. 각 교구 부활란 예상량 (여자목장 x 부활란 2판, 1판 30개 기준)

교구 (목장수)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합계
현물수(판)	41	43	42	41	45	41	32	285
수량(개)	2,160	2,280	2,220	2,160	2,400	2,160	1,620	15,000
소봉투	1,080	1,140	1,110	1,080	1,200	1,080	810	7,500
목자준목자용대/소(세대수)	56/846	58/894	50/740	54/720	51/788	49/615	60/570	369/5,173
대봉투 (소봉투40개씩포장)	6 234	6 246	9 370	9 360	10 412	12 465	6 240	대봉투 58 (소봉투 2,320)

3. 포장 일시 및 장소 : 4월 19일(토) 오전 10시, 교구별 지정 장소 (포장 지원물품은 9시40분까지 전도본부에서 수령)
4. 수집장소 : 목자, 준목자용 - 교회 정문 좌우 담장길 담(교구)자리 (텐트 설치 금요일 오후4:30) / 개인전도용 - 배치 장소 추후 공지합니다.
5. 부활란 지원 : 각 교구에서 10판씩 지원하여 교회학교/행복한 사람들 지원
 (1) 교회학교 40판 - 수 낮12시 제3교육관 쉼터 (2) 행복한 사람들 30판 - 수 낮12시 행복한 사람들 사무실

III. 부활란 전도 지역 배분 (동아1단지, 동아2단지)

동아아파트 1단지, 2단지								
동	층수	층별세대	세대수	형식	라 인	전도대원 수	합계	담당교구
1	15	7	105	복도식	각층별 1명	15	49명 615세대 (1)	6교구
2	15	10	15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9-10	10		
3	15	6	9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6		
4	15	10	15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9-10	10		
5	15	8	12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8		
			615			49		
6	15	12	180	복도식	각층별 1명	15	54명 720세대 (2)	4교구
7	15	12	180	복도식	각층별 1명	15		
8	15	8	12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8		
9	15	10	15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9-10	10		

- 2 -

10	15	6	9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6	56명 846세대 (3)	1교구		
			720			54				
11	15	12	180	복도식	각층별 1명	15				
12	15	6	9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6				
13	15	10	15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9-10	10				
14	15	6	90	복도식	3개층당 1명	5				
15	15	8	120	복도식	2개층당 1명	8				
16	18	6	108	엘리베이터식	1-2, 3-4, 5-6	6	51명 788세대 (4)	5교구		
17	18	6	108	엘리베이터식	1-2, 3-4, 5-6	6				
			846			56				
18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19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20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21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22	20	8	160	복도식	2개층당 1명	10	58명 894세대 (5)	2교구		
23	20	8	160	복도식	2개층당 1명	10				
24	15	12	180	복도식	1개층당 1명	15				
			788			51				
25	15	12	18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9-10, 11-12	12				
26	15	12	18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9-10, 11-12	12				
27	15	12	18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7-8, 9-10, 11-12	12				
28	15	6	9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6	50명 740세대 (6)	3교구		
29	15	8	120	복도식	2개층당 1명	8				
30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31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894			58				
32	18	6	108	엘리베이터식	1-2, 3-4, 5-6	6				
33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34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35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36	18	8	144	복도식	각층별 1명	18				
37	20	6	120	엘리베이터식	1-2, 3-4, 5-6	6				
38	18	4	72	엘리베이터식	1-2, 3-4	4				
39	20	4	80	엘리베이터식	1-2, 3-4	4				
			740			50				
합계			4,603세대				3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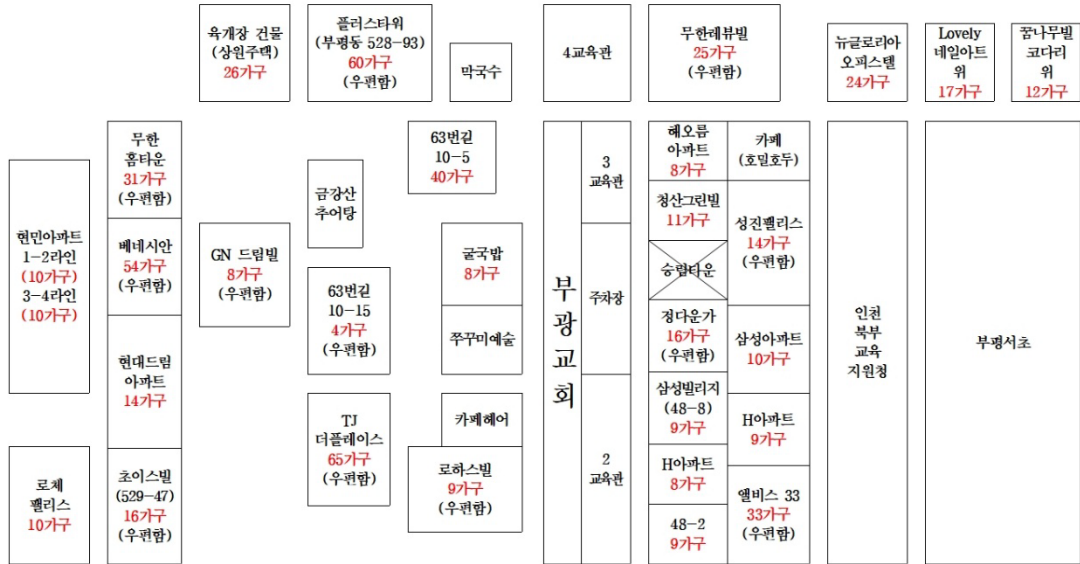
※ 교회 주변 빌라 담당 : 7교구(570세대) (7)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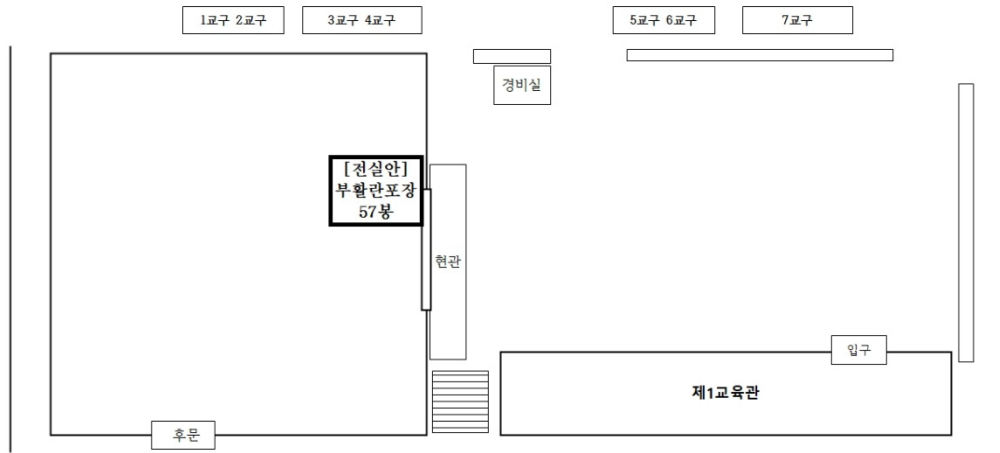
※ 7교구 전도담당지역(교회 주변 빌라)

<2025 부활란 교회주변 570가구-7교구>

■ 일시 : 4/20(주일) 2부(9시), 3부(11시) 예배 후 ■ 목자, 준목자 : 60명



※ 부활란포장 배치표



- 1) 교구전도 : 천막 4동(교회 1동, 대여3동)-1교구 반동씩. 천막대여료(1동 60,000원, 용달비 50,000원 - 230,000원)
- 2) 야간 아르바이트 : 청년(22:00-06:00) 100,000원

부활란 전도 포장장소

2025년 4월 19일(토) 오전10:00

교구	포장장소	준비	부활란 판수
1교구	자모실		72
2교구	중보기도실(큰방)		76
3교구	지하주차장	• 바닥 매트 4줄	74
4교구	지하예배실(앞)	• 바닥 매트 4줄	72
5교구	지하예배실(뒤)	• 바닥 매트 4줄	50
6교구	본당전실로비 (교구장사무함)	• 바닥 매트 4줄	72
7교구	지하 찬양대가운실	• 바닥 매트 4줄	54

- 교회 마당 밖 텐트(목자준목자 전도용 포장계란 보관장소)
- 텐트 당 바닥 은박매트 2줄씩(총 8줄)
- * 포장 후 목자, 준목자용 대봉투는 교회 정문 천막 지정된 장소에 배치합니다.
- * 나머지 부활란 대봉투는 전실 입구에 배치합니다.

3) 중보기도 사역 : 24365(24시간 365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 중보기도 담당자 ♥

중보기도 담당목사 조흠준 & 대장 이희성권사

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간	김해경 권사 010-5092-571	서효정 권사 010-5337-6149	한귀녀 권사 010-2887-6747	신은재 권사 010-8917-1534	유미경 권사 010-8831-4571	정정아 권사 010-9630-6156	지민영 권사 010-8977-6738	
밤12-1시	김종연 권사 010-5775-4982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유순덕 권사 010-9917-1339	성순재 권사 010-9443-7290	김선희 장로 010-2827-9849	
1-2시	김종연 권사 010-5775-4982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유순덕 권사 010-9917-1339	성순재 권사 010-9443-7290	김선희 장로 010-2827-9849	
2-3시	김종연 권사 010-5775-4982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유순덕 권사 010-9917-1339	성순재 권사 010-9443-7290	김선희 장로 010-2827-9849	
3-4시	김종연 권사 010-5775-4982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유순덕 권사 010-9917-1339	성순재 권사 010-9443-7290	김선희 장로 010-2827-9849	
4-5시	김종연 권사 010-5775-4982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유순덕 권사 010-9917-1339	성순재 권사 010-9443-7290	김선희 장로 010-2827-9849	
5-6시	김종연 권사 010-5775-4982	안순자 권사 010-5318-0432	우명숙 권사 010-5295-5248	신동화 권사 010-3237-5179	김화순 권사 010-9083-1722	김희정 권사 010-2490-4685	김선희 장로 010-2827-9849	
6-7시	최금순 권사 010-9096-7131	안순자 권사 010-5318-0432	이정숙 권사 010-7741-6681	이병학 권사 010-4116-2287	신옥선 권사 010-6638-3604	김향례 권사 010-3182-5588	송경숙 권사 010-5309-9959	
7-8시	1.2.3 부 주일 예배 특공대팀	심인숙 권사 010-5765-0815	송은하 권사 010-5261-5689	이효주 장로 010-6328-2220	김주영 권사 010-5595-8628	조은혜 권사 010-8764-4093	이종기 장로 010-9744-7763	
8-9시		장유미 권사 010-6617-4615	이희선 권사 010-9249-5251	나재정 권사 010-5505-9359	유근례 권사 010-9011-6294	최은주 권사 010-8020-5322	김지향 집사 010-5299-3050	
9-10시		조혜숙 권사 010-9083-4664	이홍순 장로 010-7232-6706	이상미 집사 010-6623-1056	김정혜 권사 010-3741-3852	황경애 권사 010-9037-1912	박선영 권사 010-5513-9374	
10-11시		손해령 권사 010-8776-0313	김중향 권사 010-5212-8150	이정옥 장로 010-4050-0425	이연희 권사 010-4642-8371	우순례 권사 010-9179-8093	정혜자 권사 010-8960-3046	
11-12시		한귀녀 권사 010-2887-6747	홍성필 권사 010-5390-8379	조성신 권사 010-9414-1875	김영문 권사 010-9061-4067	조상현 권사 010-3689-8231	정정이 권사 010-9630-6156	
오후12-1시		정기옥 권사 010-9064-4425	우정자 집사 010-6363-0294	정애순 권사 010-3581-7743	김철순 권사 010-2612-4910	최의선 권사 010-2801-2883	정정이 권사 010-9630-6156	
1-2시		박순심 권사 010-9158-6559	서보경 권사 010-5412-4288	김은숙 장로 010-2441-0225	김영순 권사 010-5556-6605	임병애 권사 010-2255-2865	황순정 권사 010-5535-8378	주은미 권사 010-6775-0986
2-3시		송복자 권사 010-5680-3160	이선애 권사 010-3778-8233	이영순 권사 010-3200-7606	조순례 권사 010-4536-8419	송경애 권사 010-4406-3022	문순분 권사 010-3721-4494	박정희 권사 010-5650-2570
3-4시		노은서 성도 010-4860-0153	서효정 권사 010-5337-6149	인영숙 권사 010-9007-8923	이수자 권사 010-9034-3960	박정옥 권사 010-9038-0790	박정미 집사 010-9415-7124	홍지선 장로 010-2458-9553
4-5시		기성임 권사 010-6324-0610	이명근 권사 010-2201-5700	이영숙 권사 010-5095-6550	김경미 권사 010-9674-6259	황희숙 권사 010-2430-8891	성은정 집사 010-3277-4219	추희경 권사 010-8700-8882
5-6시		유영란 권사 010-5337-5183	주영희 권사 010-6299-6790	임미숙 권사 010-2377-7582	이정심 권사 010-2828-1612	정계화 권사 010-5825-9308	김정자 권사 010-5248-7661	정광순 권사 010-4139-9737
6-7시		저녁 예배	김복림 권사 010-6400-3735	유연희 집사 010-8719-4237	김영은 권사 010-5294-2964	김영희 권사 010-9707-2010	최윤정 권사 010-8353-4640	한경자 권사 010-3105-7601
7-8시	정새미 권사 010-7142-5537		김명희 권사 010-5322-3927	저녁 예배	강도실 권사 010-2443-9321	강은선 권사 010-4789-4688	지민영 권사 010-8977-6738	
8-9시	최영란 권사 010-9763-9772		김구섭 권사 010-5170-2314		한선정 권사 010-7338-3281	김영숙 권사 010-2207-1877	김해경 권사 010-5092-5711	
밤9-10시	박선경 권사 010-9092-4766		신은재 권사 010-8917-1534		황종숙 권사 010-5800-7072	이자심 장로 010-4278-6987	김미경 권사 010-7724-0037	정종숙 권사 010-9076-1934
10-11시	이강순 권사 010-6369-5664	성향채 권사 010-6737-5797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장경남 권사 010-3324-7982	박선미 권사 010-9110-4582	봉유선 권사 010-5001-5563	
11-12시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박정경 권사 010-8981-3771	김경자 권사 010-9174-7676	유순덕 권사 010-9917-1339	유미경 권사 010-8831-4571	김종연 권사 010-5775-4982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Yonghoon Cho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April 20, 1980

Parent`s Names: Myungdong Cho and Sunrak Jeo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Jangchung High School 93, Dongho-ro 15-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1999
Collegi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14, 2003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5, 2007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Yonghoon Cho

March 20, 2026